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 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온라인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

교회마저 대체주의에 빠지는 순간,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빈곤하게 전락할 것이다

2020년 3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시행되자 많은 교회가 발 빠르게 라이브 스트리밍과 비디오로 전환했다. 팬데믹 이전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교회는 22퍼센트였다. 그러나 몇 주 만에 그 수치는 66퍼센트로 급증했고, 개신교 목사의 92 퍼센트가 영상 설교나 예배를 제공했다.

팬데믹이 사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교회의 수가 늘어났으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라는 관행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게 거의 분명하다. (Pew Research의 새로운 설문 조사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교인들의 관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한 세대 이전에 대형 교회들은 이미 찬란한 일요일 아침의 텔레비전 방송에 필적할 만큼 응집력 있고 매력적인 예배 방송에 능숙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사역을 하는 모든 교회가 주장하듯, 전문적으로 잘 포장한 교회 콘텐츠는 지역 교회의 영향력을 넓힐 뿐 아니라 설교자와 성경 교사의 영향력까지 확장한다.

보충제는 대체물이 아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인들을 괴롭히는 문화적 질병인 "대체주의"(substitutism)에 취약하다. 이는 조슈아 미첼이 쓴 American Awakening에



나오는 용어이다. 그는 쉬지 않고 쉬운 대안과 지름길을 찾아 해매는 우리의 열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또한 보충제를 아예 대체물로 만들지 좋 아하는 우리의 경향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미첼의 책에 온라인 교회나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소셜 미디어와 우정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대체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서 대체주의에 대한 그의 진단을 살펴보고, 그의 통찰을 예배에 적용해보자. 소셜 미디어는 고작해야 실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관계를 향상할 뿐이다. 미첼은 이렇게 설명한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기준 우정에 보충제가 될 수 있다.

약수, 등 토닥이기, 포옹 등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친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오랜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 이 보충제를 통해서 우리는 친구라는 존재감을 느낀다. 그러나 기준에 만들어진 우정이라는 역량이 없이 단지 보충물만으로는 결코 존재감을 만들어낼 수 없다.

즉, 우정은 진짜이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는 보충제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소셜 미디어가 우정이라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이미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온라인에서만 아는 존재를 향해서 "친구"라는 말을 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비타민은 정기적인 식사가

반드시 함께 할 때만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보충제이다. 사람이 비타민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비타민이 식사를 좋게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그 자체이다. 식사가 핵심이다. 비타민이 도움을 줄 뿐이다.

용기가 넘치는 경험 많은 전사를 상상해보라.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 그의 전투 능력이 향상되고 승리에 대한 열정도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무기가 그 사람을 전사로 만드는 건 아니다. 무기가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다.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무기를 손에 쥐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기독교, 경계를 넘어 영화로 소통하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영화 축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9월 14일 개막했다.

2023년 제2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지난 20년의 역사(History)의 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영화를 통해 전할 그분의 이야기(History)를 소망하며 올해의 주제를 'History'로 정했다. 2003년 '기독교, 영화와 만나다'를 기치로 출범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해마다 기독교적 시선을 지닌 영화들을 세상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지저스 레볼루션>으로 축제의 문을 연다. 이 영화는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전역을 휩쓸었던 기독교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10대 히피 공동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미국 기독교 영화계 선두 주자인 어윈 브라더스가 메가폰을 잡았고, 올 초 미국에서

개봉하여 5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도 기록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2회 상영된다. 폐막작은 일본 영화 <마이 데디>. 작은 교회의 목사인 카즈오는 생계를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학생 딸 히카리를 홀로 키우고 있다. 어느 날 히카리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서 카즈오는 오랜 시간 감춰져 왔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며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뒤흔들릴 위기에 처한다.

영화제 기간 옛세 동안 상영되는 영화는 3개 섹션(아가페 초이스, 미션 초이스, 필름포럼 초이스)으로 구성되고, 영화 상영 후에는 시네토크가 진행된다.

아가페 초이스는 주님이 빛은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삶을 영화를 통해 조망해보는 섹션이다.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소외된 인간들이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지용주 목사



8면 신앙칼럼(New) 차용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약)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초청합니다

2023 다민족연합기도대회

Heal Our Land!

일시 2023년 10월1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7:14)

주여, 우리가 주제로 돌아와 회개하오니 이 땅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참고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를 버렸고, 공립학교와 대학 교육은 자녀들의 영혼들을 빼앗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아름다운 토대를 흔들고 있고, 교회를 마저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다민족이 모두 함께 모여 역대하7:14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속히 부흥을 보내셔서 나라를 고쳐주소서도록 비상하게 간구하는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회 조직
고문: 김춘근장로, 김영길목사, 김민식목사, 민중기목사, 송정명목사, 한기형목사, David Andrade, Walter Tucker, Jorge Fuentes, Peter Xu, David Van
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태형, 구봉주, 김기동, 김경진, 김우준, 김종규, 김호용, 김한오, 노창수, 민경엽, 민승기, 박성규, 박신용, 심상은, 신승훈, 이종용, 이호우, 진유철, 최홍주 (이상 목사, 가나다 순) David Diaz
준비위원장: 강순영목사 (310 995 3986), 공동준비위원장: 심상은목사 (714 722 4805)
사무총장: 강태광목사 (323 578 7933)
주관: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공동주최: JAMA, OC교협,미주성서화문동부, 은혜한인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권즈장로교회 담임)

질문이 있습니다

"짜짜짜" 한국총회 친선 사절단 일행이 식사하던 대전의 식당에서 울려 퍼진 박수 소리였다. "멋진 대화를 하는데 어찌 박수를 안 칠수 있습니까?" 박수와 함께 외침도 있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화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마음에 감동(?) 되었던 것일까. 잠시 후 식사 중인 우리 식탁으로 다가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목사님들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모임이었는데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며 다가온 것이다. 그를 잠시 기다리다 해놓고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깨끗한 다른 식탁에서 그와 대면해 앉았다. 무슨 질문이 있으시냐는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는 필시 스님이였다. 자기의 식사 중 술을 한 두잔 한 것도 분명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는 나의 답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란 단어에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어졌던 대화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와 불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강조했고, 불교와 기독교 가운데 요청되는 것은 "헌신"이라고도 주장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에 필자의 당혹감도 없었다. 그는 아주 짧지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 대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우위 사상을 확연히 나타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질문과 대화와 사상에 왜 그렇게 기독교를 사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그는 미션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머니와 누이가 "권사님"이라고도 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불교도가 된 것이다. 그의 전체 태도와 언어 가운데 보았던 것은 진리가 기독교에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결코 진리가 아닌 자기의 현재 자리를 떨쳐 나오지 못함에 자학하고 있던 모습이었다. 일행이 있어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 아니겠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며 괴로워하다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다.

이번에 친선사절단으로 방문 중인 한국의 여러 장로교 교단 중에 합동 총회가 있었다. 그곳에 참석 중에 그 총회의 재판국장을 통과시키는 장면을 보았다. 재판국장을 임명하면서 총회장이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 재판국은 세상의 어느 법정보다 탁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우월적이며 탁월한 답변은 절대 진리를 품은 기독교외에 누가 줄 수 있겠는가.

성공하는 개인 전도를 위한 세 가지 법칙

전도는 결코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과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시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 방법' 운운하는 책을 볼 때면 불편함을 느낀다. 무엇보다 그런 책이 사실로 가정하는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전도 관련 책들은 주로 정보를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서 실제로 누군

가를 만나서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도 전략은 사람이 하는 논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말씀을 통해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전도에 반응한다는 것은 논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전도는 단지 정보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도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진정으로 인격적인 전도가 되도록 돕는 새로운 "법칙"을 소개하겠다.

법칙 1: 경청하라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과 하나님 말씀의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때 번성한다. 복음 전도자들은 소책자나 팸플릿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사람의 영혼을 보살피는 전도자는 귀를 기울인다.

먼저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당신 스스로 초래한 수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행여라도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겠다는 결심에서 멀어진 건 아닌가?

나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었다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모든 실패를 당당히 대면함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도자라면 항상 성경 속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이 사는 공동체를 구원하고 싶은가? 문밖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실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새롭게 압도하도록 만들라. 오늘 복음을 들었는가? 얼마 전에 저지른 죄를 똑똑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패배했는지를 한 번 더 마음속에서 그려보았는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세우신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영혼이 성경으로 적셔지고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과 생각으로 무장한 전도자는 이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전도는 천편일률적인 일이 아니기에 경청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의사는 모든 증상에 같은 약을 처방함으로써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 의사는 대학을 다시 다녀야 한다. 귀 하나는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귀는 하



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특별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현명하게 선포할 준비를 하라.

피자 가게, 기차역 등등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선포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다음 말이 될 수도 있다.

법칙 2: 선포하라

전도는 들은 내용을 전도 대상자에게 지혜롭게 연결하고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할 때 번성한다.

대부분의 지도 엠은 상황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 심지어 다양한 교통수단(자동차, 대중 교통, 도보 등)의 경로까지도 조정해준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전도자는 십자가에 이르는 많은 경로에 능숙해야 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 때때로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미리 결정된 도로, 일련의 법칙 또는 다리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할 가장 적절한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한다.

복음의 선포는 주일 예배 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설교, 세례, 성만찬, 또는 확신의 말씀 중에 선포되기도 한다. 또는 예배가 끝나고 나누는 주자장 대화에서도 선포될 수 있다. 때때로 자녀를 재우는 부모의 입에서 복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복음의 선포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가능하다. 복음은 뒤뜰, 사무실, 문자 메시지,

법칙 3: 반복하라

전도는 우리가 경청하고 선포하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 때 번성한다. 영혼을 직접 돌보는 전도자는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선포는 여러 조각을 맞춰야 하는 깨진 기록과 같다. 전도는 결코 제자도에 따라오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제자도야말로 철저한 전도, 그 자체이다.

경청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찾으라. 그리스도인이자면 개인적으로 영혼을 돌보기 위해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언제나 복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선포야말로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향유, 연고, 치료제이다.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의 핵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셨고 부활을 통해 죄를 정복하셨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상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고성민 목사 취임
기둥교회 & 뉴욕기둥교회
형제교회 결연
초대합니다
2023. 10. 15.(주일) 5pm
뉴욕기둥교회 대예배실
NY 뉴욕기둥교회 PILLAR CHURCH
263-10 Union Turnpike Glen Oaks, NY 11004
I·N·V·I·T·A·T·I·O·N

온라인 빵으로만 살 수 없다

(1면에서 계속)

우리의 능력을 갠아먹는 지름길

이게 문제이다. 진짜를 보충제로 대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진짜로 좋은 것을 제공하는 “역량” 그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미첼은 이렇게 경고한다.

오늘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방대하고 길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유혹들이다. 살면서 당연히 치러야 하는 노력 없이 지름길로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전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는 것이 이 유혹 속에 숨은 위험성이다.

비타민이 식사를 대체할수록, 우리는 점차 훌륭한 음식을 요리하고 잔치를 벌이는 능력을 잃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진짜 우정을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얼굴을

보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능력 자체를 잃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이 “연결”된 소셜 미디어 시대에 왜 외롭다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는지 궁금한 적이 없는가? 바로 대체주의 때문이다. 보충제에 너무 매료된 우리는 진짜 식사를 하지 못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이상 미덕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풍부하고 깊은 우정을 쌓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진짜 우정이 어떤 것인지도 아예 모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온라인 예배나 텔레비전 설교 시청이 언약 공동체로 모인 신자들의 물리적인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 아프거나 출장 중일 때야 온라인 예배라는 보충제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유익은 오로지 진짜로부터만 나온다. 온라인 예배는 진짜 예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짜 경험의 맛을 보게 할 뿐이다. 진짜 식사에 대한 보충제일 뿐이다.

지름길의 유혹

삶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지름길이 주는 매력은 신앙의 문제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유혹이다. 우정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 함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 생활의 어려운 수고를 피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보충제에 달려가는 사람에게서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영적인 성장은 오로지 합당한 수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준 높은 온라인 예배 제공이라는 선한 일에 종사하는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단, 이것이 보충제라는 점만은 꼭 기억하자. 단지 보충제일 뿐이다. 교회마저 대체주의에 빠지는 순간,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빈곤하게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조차 남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by Trevin Wax, TGC

기독교, 경계를 넘어 영화로 소통하다

(1면에서 계속)

〈커밍 홈 어게인〉은 암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의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뉴욕 커창래가 잃어버린 엄마의 정체성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재미작가 이창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창래 역을 맡은 〈파친코〉의 저스틴 전 감독의 연기가 돋보인다. 매년 한반도영화연구원(KPI)이 함께하는 ‘KPI 시네토크’에 올해에는 〈커밍 홈 어게인〉으로 이무영 감독과 심혜영 교수, 성현 부집행위원장이 관객과 만난다. 그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끄는 영상 제작집단 〈분부〉 소속 카와와다 엠마 감독의 상업 영화 장편 데뷔작 〈나의 작은 나라〉는 쿠르드 난민 고등학생 사라의 성장 이야기이다. 사라는 어릴 때 일본으로 이주하여 평범한 일본인으로 살아왔으나 가족의 난민 신청이 거부되고 사라의 아버지마저 수용소에 감금되면서 사라의 일상은 크게 흔들린다. 영화 상영 후 문화 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과 올해의 영화제 홍보대사 리키김이 내가 속한 세상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다.

〈조용한 이주〉는 덴마크 시골에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 입양아 칼의 이야기이다. 양부모는 그가 언젠가 가족의 농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라지만, 같은 자신의 ‘집’인 덴마크와 더불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인 ‘한국’이라는 두 세계 모두에 끌리기 시작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온다. 영화 상영 후, KBS 라디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을 진행하며, 인문학, 심리학, 글쓰기 등 여러 면에서 글을 쓰며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여울 작가와 함께 하는 시네토크가 있다.

마지막으로 〈파편들의 집〉은 러시아

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동쪽에 이혼을 앞둔 부모들의 아이들이 머무르는 보육원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국 부모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다. 영화 상영 후에는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 전쟁 고아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연출한 추삼미 감독과 재난 전문 다큐멘터리 연출가인 이승구 PD가 이야기를 나눈다.

선교 영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색션인 미션 초이스는 신앙의 비전을 고취하고 복음의 가치를 영화를 통해 돌아보는 전통적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시몬 김성수 : 우리는 최고다〉는 1930년 출생인 성공회 시몬 김성수 주교의 이야기이다. 김성수 주교는 1970년대 국내 첫 발달장애인 학교 성베드로학교를 설립하고 평생을 장애인들의 아버지로 살아 온 인물. 이 영화는 사제, 수녀, 신자, 가족, 지인 등 그의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주교이면서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인물의 삶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영화 상영 후에는 김성수 주교, 영화를 연출한 남승석 감독,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배혜화 집행위원장과 함께하는 시네토크가 있다.

충무로 시대로 대변되는 한국 영화 전성기의 기독교 영화 〈사랑의 원자탄〉은 〈마부〉로 1961년 베를린영화제 특별공상을 수상한 강대진 감독이 연출했다. 나병환자촌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돌보던 손양원 목사는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친자처럼 보살피며 살다가 순교한다. 한국 기독교 근현대사에서 잊지 못할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의 이야기가 40년 만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복원되어 특별 상영된다. 기독교 영화 평론가 강진구 교수의 사회로 1980년대 한국 영화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한 이장호 감독이 그 시절 함께 활동했던 강대진 감독의 작품세계와 기독교 영화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필름포럼 초이스는 필름포럼이 최근 소개된 작품들 가운데 다시금 주목할 만한 영화와 하반기 국내 배급 예정 신작을 소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모체가 된 단편영화경선을 거쳤던 이경미 감독, 최진영 감독의 작품을 상영한다. 제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출품작인 이경미 감독의 〈잘대가? 무엇이든〉과 장편 대표작 〈미쓰 홍당무〉를 함께 상영하고 이경미 감독과 단편 출연배우 최희진 배우, 서영주 배우가 함께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단편경선 출품작인 최진영 감독의 〈반차〉와 최진영 감독의 장편 대표작 〈태어나길 잘했어〉의 상영 이후에는 〈반차〉의 주인공인 윤경호 배우, 이안나 배우와 최진영 감독이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인 〈드롭박스〉도 재상영한다. 이종락 목사는 교회 대문 앞에서 한 아기를 발견한 이후 다른 아이들도 구하기 위해 교회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다. 영화는 이종락 목사의 삶의 여정과 베이비 박스 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대해 그린다. 영화 상영 후에는 〈드롭박스〉의 주인공 이종락 목사가 관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폐막식에는 (재)통일과나눔이 후원하고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주관하는 (사)필레마가 진행하는 “통일의 빛, 평화의 다리 프로젝트”의 2022년 사전 제작 지원 당선작 〈백두대간〉이 〈마이 대디〉와 함께 상영되며 축제의 막을 내린다.

By TGC Korea

시론

교회의 생명은 정직에 있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최근 유명해진 하버드대학 교수가 있다. 물론 그동안 꽤 명성있는 교수로 알려져 있었고 그 교수의 연구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은 권위있게 인정받아온 교수라고 한다.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 그런데 이 이름이 요즘 지탄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어있다. 그 원인은 거짓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노 교수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0여년 동안 연구해온 ‘부정(cheating), 거짓말(lying), 부정직(dishonesty) 등에 관한’ 이 연구팀에서 발표한 데이터들이 관련학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돼온 자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연구과정들 중에 상당한 거짓 방법이 드러났고, 지노 교수는 학교에서 ‘공무휴식’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를 해온 교수가 학계에서 가장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일해왔다는 사실이 학계는 물론 학생들과 소식을 접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특별히, ‘세금이나 보험정보 같은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정직서약(honesty pledge)을 하게 하면 작성후 서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서류를 작성한다’는 연구는 지노 교수의 대표적 연구업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사에 따르면 지노 교수의 데이터가 거짓인 것이 많고, 문제는 이렇게 거짓데이터들인 것을 알면서도 출판을 멈추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그 거짓 데이터들을 왜곡 편집한 내용이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다 물증으로 드러남으로써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도덕과 윤리의식은 학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각주나 참고 등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살펴보고 표절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지노 교수를 향한 질타가 더욱 매섭게 가해지고 있다.

세상학문에서도 이렇다면 영성의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신앙과 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본 회퍼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속에 그 대답이 담겨있는데, 신앙은 부풀림이나 위선이 있을 수 없고 ‘정직’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의한 말이라고 보여진다. 즉, 누군가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정직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위선적 면모를 갖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직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와는 다른 위선적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사회는 잘 포장된 상자 안쪽에 숨어있는 썩은 복숭아 하나가 얼마 후 다른 복숭아들까지 썩게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내세우는 도덕성과 영성이 스스로의 자족감과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라면 교회가 아무리 고귀한 가르침을 선포한다 해도 이미 위선의 탈을 쓴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설교자들은, 최근에 불법이 발각되어 비난을 받고있는 지노 교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말 말씀 앞에서 정직한가, 인용 설명없이 슬쩍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더욱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말끝마다 붙이는 “할렐루야”와 습관처럼 던지는 “아멘?”이 이미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린 시대에 진실한 할렐루야와 아멘의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 설교자는 더욱 정직한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 서있는 정직함)의 자리를 찾아가야만 할 것이다.

화장이 필요한 시대이다. 때로 분장도 필요하고 보톡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위장이다. 아름답게 보이려 하는 화장이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분장은 용납되지만, 진실을 가리는 위장은 용서할 수 없다. 교회는 손해를 보아도 정직해야 하며, 끝까지 정직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djlee7777@gmail.com

고등부, EM 교역자 청빙

1. 지원자격

- 1) 정규 신학교 (M. 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 2)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으신 분
- 3) 고등부와 20-30대 young adult 사역에 관심 또는 경험이 있으신 분
- 4)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고 소통 및 관계를 잘 유지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

2. 사역내용

- 1) 주일예배 인도 및 설교, 성경 공부 진행
- 2) 수련회 계획 및 진행
- 3) 교회 절기 행사 및 참여

3. 지원방법

- 1) 이력서 (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 3) 신앙간증문
- 4) 영어 설교 영상 1편

4. 제출: kupcnj27@gmail.com

교회 홈페이지
www.kupcnj.org

뉴저지연합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New Jersey
27 Bay Ave. Bloomfield, NJ 07003

칼리한인장로교회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 청빙

지원 자격 :

1.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2. 정규 대학과 미국장로교 (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4. 나이 30대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 (CD, DVD, Web Address)
3.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eleigh Road, Raleigh NC 27612

이상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신앙의 오솔길

지인의 초청으로 피에몬테주에 속한 파에사나(Paesana)에 한 주간 머물렀다. 그곳은 순수한 이탈리아 지역에 속한 몬비소(Monviso 3841m)산을 아우르고 있는 마을이다. 다른 높은 산들, 예로 몽블랑, 마테호른 등등은 한쪽은 프랑스, 한쪽은 스위스로 걸쳐있으나 몬비소산 만은 온전히 앞뒤 모두 이태리 지역이라고 한다. 항상 구름으로 가려있었는데,

이번에 먼 곳에서 방문한 길손을 위해 안개를 물리고 속살을 내보였다. 삼각형의 모습인데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였다. 이 지형을 연구하는 후배는 중세 불란서의 개척자들이 이 높은 산을 넘어왔다고 한다.

신앙의 꺾박을 피해 고향과 재산과 땅, 가족 등을 버리고 작은 보따리를 둘러매고 이 높은 산을 넘어왔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추적자들을 빼돌리기 위해 고요한 날 보다는 비바람 부는 험한 날, 환한 대낮보다는 어두컴컴한 시간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 옛날 신앙의 순례자들인, 알도파나 위그노인들의 족적을 더듬어 차를 이용하여 1700M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이상 원하는 사람은 걸어서 가도록 되어 있다. 가톨릭 성지는 대체적으로 걸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마도 공로를 위해서인가 보다. 이런 먼 곳까지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험한 코스는 걸어서 도착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명한 방법이다 싶다.

험난한 길을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오르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 영적으로 얻는 게 있을 것이다. 나는 열정만을 앞세워 올라갔다가 입술이 두 군데나 터지고 말았다. 앞을 가로막는 능선이나 산을 보면 꼭 올라

가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저 너머에 대한 환상 내지는 궁극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 호기심으로 죽음을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말이다.

아마도 이 험한 산길을 넘어 오던 중 천 길 낭떠러지로 굴러 생을 마감해야 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싶어진다. 히말라야 등반을 오르는 산악인들은 낙오자가 생기면 일정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를 구원할까? 아니면 모처럼 얻은 기회(일기)를 허송할 수 없어 그냥 모르는 체할까? 어둑어둑한 밤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구조하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신앙의 순례자들이 이 주변의 높은 산들을 넘고 또 넘어야 했다. 오직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 그 선배들의 함성이 저 앞에 떨어지는 폭포처럼 들려오는 것 같다. "그의 나라를 도모하라"

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핸드폰에서 ping동하고 소식이 왔음을 알린다. 이 높은 이태리의 알프스 산자락에서 일 만키로나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본다. 참 신기한 일이다. 뉴스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 빚을 내서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당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대부분의 뉴스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정말 요긴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모르기 때문인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인지 모른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다. 육신은 길어야 백년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존감을 소유하게 된다. 자존감을 어떤 이는 내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이가 이런 자존감을 지닐 수 있을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자들이다.

위대한 자존감을 사자처럼 외친 바울의 고백을 음미해보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도니라"(딤후 4:7-8) 이 구절을 암송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본다.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걸어갔던 도상에서.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지용주 목사

(시라쿠스 한인교회)



John Maxwell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언제나 더 큰 꿈을 품고, 그 꿈에 자극을 받아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고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목시(비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망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29:18)고 말씀합니다. 시카고 월로우크릭 하이벨스 목사님도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목표에 집중하여 도달할 수 없고, 꿈을 좇을 수 없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력이 소실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받은 비전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흥을 목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B.C. 465-424)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재위 20년 기습래월에 수산 궁에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자들이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여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오랫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환란과 고통의 현실에서 구원하고,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 1:11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자신이 고 통받는 자기 백성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아닥사스다의 도움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개월간 기도한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중건을 허락하였으며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중건을 적극 지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이 일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셨고, 그것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온갖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백성을 조롱하고, 모함했으며, 심지어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

야와 백성들은 그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성벽 재건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일입니다. 사실 그들은 단기간에, 그것도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가운데 성벽 재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기적을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수문 광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응답하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배

세트 노스필드(Northfield, MA)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비전인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 1879년 자신의 생가가 있는 노스필드에 Northfield Seminary for Young Ladies라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1880년부터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부흥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Northfield Bile Conference를 시작합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 350여 명이 이 말씀 집회에 참석했고, 그들에게 1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선교의 동력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듬해 제2회 집회 때는 한 달 동안 900여 명의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의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권능을 체험"하며 큰 영적 감흥을

오킨 주역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늘 내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비전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7년부터 뉴욕 Upstate 지역을 중심으로 NYBC (New York Bible Conference)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8회째를 맞는 이 말씀 사경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시대의 신앙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기존의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대로,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NYBC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 영적 회복을 꿈꾸는 부흥 운동입니다. 처음으로, 기본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혁을 일으키는 movement입니다. 이 운동은 무너진 예배를 예배 되게 회복하고,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사라진 이 땅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이루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셨던 원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Remember), 주님과 그의 관계를 회복하고 (Revive),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Renew)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의 존귀가 회복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어려운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기도했던 여러분께,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울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그 말씀을 통해 헌신 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workman4yeshua@gmail.com

비전과 부흥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1-12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성벽을 짓고 봉헌식을 거행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크게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성안에 사는 백성들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성벽 재건의 의미는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있은 후 백성들은 칠월 일일에 다시 성벽 앞 수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된 지 불과 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중 거리를 감안하면 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불과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어려운

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격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절려 쪼개어 자신을 흔드는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듯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에스라의 동역자들과 레위인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역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율법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외형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종교개혁은 성경통독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19세기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무디는 시카고에서 했던 주일학교 사역, YMCA를 통한 청소년 사역을 그만두고 자신이 태어났던 매사추

셋트 노스필드(Northfield, MA)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비전인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 1879년 자신의 생가가 있는 노스필드에 Northfield Seminary for Young Ladies라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1880년부터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부흥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Northfield Bile Conference를 시작합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 350여 명이 이 말씀 집회에 참석했고, 그들에게 1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선교의 동력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듬해 제2회 집회 때는 한 달 동안 900여 명의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의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권능을 체험"하며 큰 영적 감흥을

받았습니다. 제3회 때는 신학자 A.T. Pierson에 의해서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라는 세계 선교 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1886년 제4회 Northfield Bile Conference가 무디가 1881년에 설립한 남자학교, Mt. Hermon 학교에서 개최되어 미국 및 캐나다의 대학생 대표들이 초대되어 약 한 달간 "대학 YMCA 여름성경명대"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집회 기간에 "Ten Nations Meeting"이라는 기도 모임을 통해 마지막 날 100명의 대학생이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는데 이들이 바로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주역인 Mt. Hermon 100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프린스턴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1888년 YMCA 대표 존 모트와 신학교 선교 연합회 대표인 월더가 합하여 11월 6일 뉴욕시에서 '학생자 원운동'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SVM을 통해 10,309명이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이 중 404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SVM 출신 선교사는 마포 삼열 (Samuel A. Moffett)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온 이들은 초기 한국교회 부흥을 일

예배가 회복이며 축복

예배가 회복이며 축복이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양반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좀 달라고 하니, 땅을 내어 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땅들을 얻고 보니, 대부분이 산꼭대기 혹은 공동묘지 근처의 쓸모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100년 넘는 역사 깊은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높은 언덕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들이, 후에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온 세상을 밝히는 산위의 등불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어차피 조선 교회를 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니, 그 거지 상놈 백정들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안식년 때에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마치,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이들을 돕는 것처럼 그들을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지금 미션스쿨인 유명 사립대학의 초창기 교수들이 된 것이다.

오늘날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인 승동교회도 곤당골이라는 백정골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난 예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는 거지 백정 상놈 양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교회로 나오면 주님의 축복권 안에 머물게 된다. 변화와 회복을 맛보게 된다. 아무리 거지같은 인생

다. 모든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복들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뜻이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이 되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그 실증적인 믿음이 기독교의 복 사상이다. 결코 기복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배의 실패, 삶의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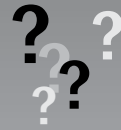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가 온전한 이들에게는, 개인과 가문의 회복과 부흥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을 본다. 영국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세계

교도 신앙이 있다. 아주 오래전 유럽에서 배가 각기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출발을 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가 있었고, 북아메리카로 오는 배가 있었다고 한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들은 황금을 찾기위해 가는 배였다. 그들은 황금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삶의 결론은 피폐하기 짝이 없게 되어 버렸다. 마약전쟁의 소문이 많고, 그나마 북미의 선교지로 전략하고 말았던 것이다. 황금을 구하고 찾는 이들의 삶의 결론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1984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제 남편은 저를 따라 교회를 나가지만 제가 볼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실비치에서 Han

남편의 거듭남

A: 좋은 질문입니다. 이현수 목사는 1.5세 목사인데 그분이 쓴 책 "Born Again"이란 책을 보니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친구의 인도로 어느 미국 남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 후 담임 목사님과 친교실에서 다과를 나눌 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egeneration입니다. 'Re는 다시' 'generate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육적 출생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적인 출생은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 안의 난자와 합쳐져 생명체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아기는 의학적으로 남자의 정자가 질을 통해 여성의 몸속으로 들어가 자궁, 나팔관으로 이동해서 정자가 여자의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수정란은 자궁으로 이동하면서 세포분열을 하고 자궁 내벽에 붙게 되는데, 이를 착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 뱃속 즉 자궁 속에서 약 9개월 동안 성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 태아는 줄곧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 후 해산 기간이 차면 결정적 순간에 자궁에 있는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자란 씨가 떨어져 난소에서 난자를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씨가 떨어져야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탄생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니지만, 중생을 하지 못한 종교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남편에게 진단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면 목사님을 초청해 부탁하십시오. "선생님께서 신앙 생활하시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와 "아니오"가 나올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해야 합니다.

오라는 종소리였다. 본인의 생각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의 새벽 기도 종소리를 기억하고, 새마을 운동을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온 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갔더니, 한국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예배가 실패하면, 하늘문이 닫혀짐으로 삶에 복이 없어진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말세의 때를 지나는 우리는

-예배의 실패는 나라와 민족의 실패-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시절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배우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한 상놈, 거지, 백정과 같은 천한 신분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특별히 거지들은 남는 게 시간이나 얼마나 좋았겠는가? 출근할 일도 없고, 남는 게 시간이나 보니, 열심히 교회를 오가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오가던 중에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지의 사연이 놀랍다.

교회와 예배, 삶의 기적

어느 날 동남이라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잠이라고 해 봤자, 다리 밑에 가마니 깔아 놓은게 전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거기 누워 있는데 마음에 생각이 찾아들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거지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식놈들도 나처럼 강퍽하고 거지 노릇 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지가 뭐 하느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생각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지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 선교사님들이 놀래 가지고 그의 기도제목들을 물어 본 것이다. 그래서 구구절절 그 사정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자신은 거지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식놈들도 거지처럼 살면 어떡하냐?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을 살아도,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며 교회의 예배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예배는 거지를 거룩한 거지가 되게 하고, 상놈을 거룩한 상놈이 되게 하고, 백정이 거룩한 백정이 되는 능력이 된다. 복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이다.

교회와 예배, 복의 원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셨다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된다. 혹자는 "복 받기 위해 교회 섬김이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강단에서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자기 의가 발동하는 분들이다. 기복신앙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삶에는 영육 간에 은혜가 없는 것을 본다. 오히려 자신의 인턴턴 지식의 짜깁기를 통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기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도록 인간 스스로가 만든 대상에 빌고 또 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이 안된다 싶으면 언제라도 그 섬김의 대상을 바꿔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 만든 대상을 섬기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철저하게 인본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만복은 복이 일만 개 있다는 게 아니

의 모든 나라가 영국의 깃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 영국에 말씀을 전하러 가보니까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것을 현상적으로 보고 듣게 되었다. 한 인교회 가운데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 없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 스스로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였다.

영국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 빌딩으로 인도했다. 돌로 지은 아주 전통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좌우에 따로 세워진 간판을 보여주었다. 왼쪽에는 'Under 21'이라 적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어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한다고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설명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다. 교회였는데 빌딩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렌트를 주었는데, 이층은 여전히 교회로 사용하고, 지하는 술먹고 춤추는 곳이 되어서 21세 이하는 못 들어간다는 표지를 세웠다는 것이다.

원래는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니 이젠 나이트클럽과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변했다는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교회가 식당, 빵집, 술집 등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영국에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든 게 작고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다. 보여줄 것은, 세계 각국에서 가져다 둔 고대유물이 전시된 대영박물관과 옛날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는 성터들뿐이었다.

교회와 예배, 청교도 신앙

그런데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어떤가? 미국만큼 모든 게 갖춰진 데가 없다. 시골 어디를 가도 호텔이나 모든 생활 여건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 그 바탕 가운데는 교회를 중심한 청

년에 LA 올림픽을 TV로 본 기억이 있다. 올림픽을 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꼭 보여주는 게 있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 교회를 세운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자기 집을 만들었던 그들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그때 우리 담임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이야기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지 아느냐? 교회를 사랑하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랬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준과 기분이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기초와 기본이 되어 있으니, 시대가 많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새마을 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이다. 필자도 그 새벽 종소리 듣고 일어난 기억이 있는데, 그 새벽에 들려지는 종소리가 뭐냐? 하는 것이다. 교회 새벽기도 오라는 종소리였다.

한국교회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거른 적이 없으니,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 운동의 그 새벽 종소리가 어디 있는가? 구미 상모교회 새벽기도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노방생주(老蚌生珠)

나이 들어 늙음을 탓하지 말라는 말은 제법 많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다. 말과 실제의 차이는 생각보다 더 커다란 것을 실감하게 된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건만 몸이 따르질 못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에 눈을 치뜨게 된다. 그리스 격언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는 말이 있고 나이는 기억력을 빼앗는 대신에 통찰력이 자리 잡는다는 말도 있다. 고려장 풍습이 있

던 옛적에 박정승은 노모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자 노모는 "네가 내려가는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해 두었다"고 말했다. 박정승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노모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물레 국밥을 어기고 노모를 모시고 산에서 내려와 노모를 봉양했다. 그 무렵 수나라 사신이 똑 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끌고 와 어느 쪽이 어미이고 새끼인지를 맞추라는 문제를 내놨다. 못맞추면 조공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박정승에게 노모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말을 굶겼다가 여물을 주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박정승이 이 문제를 풀자 수나라는 또 다른 문제를 냈는데 그건 네모난 나무토막의 위아래를 가려내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노모는 "나무란 물을 밑에서부터 빨아올린다. 그러므로 물에 뜨는 쪽이 위쪽이란다." 박정승이 이 문제도 풀자 약이 오른 수나라는 더 어려운 문제를 냈다. 그건 재로 새끼를 한 다발 꼬아 바치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박정승의 노모가 하는 말이 "애야, 그것도 모르느냐? 새끼 한 다발을 꼬아 불에 태우면 그게 재로 꼬아 만든 새끼가 아니냐?"고 알려 주었다. 수나라에서는 박정승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자 '동방은 지혜 있는 민족이다'라며 다시는 깔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나라를 구한 노모의 현명함이 왕을 감동시켜 고려장이 사라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물론 고려장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가짜 뉴스였다. 성경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9:32)는 말씀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다. 그만큼 노인이 많다는 말이고 이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중이다. 연금이 고갈된다거나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지며 여기저기 노년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노인 하나가 죽으면 살아 있는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안타까움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젊은 이들이 두려워 할 미래를 감아 먹는 염치 없는 세대로 치부가 되는 까닭이다. 노방생주(老蚌生珠)라는 말은 늙은 조개가 진주를 품는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을 거치지 않고 결실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오늘의 노인도 어제는 청춘이었다. 노인이 청춘이었을 때 오늘의 젊은이는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 있다. 즉 오늘은 오늘의 노인들이 일궈놓은 것이고 그

것을 젊은이들이 누리는 것이기에 내일의 몫이 노인들에게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다. 그만큼 노인이 많다는 말이고 이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중이다. 연금이 고갈된다거나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지며 여기저기 노년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노인 하나가 죽으면 살아 있는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안타까움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젊은 이들이 두려워 할 미래를 감아 먹는 염치 없는 세대로 치부가 되는 까닭이다. 노방생주(老蚌生珠)라는 말은 늙은 조개가 진주를 품는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을 거치지 않고 결실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오늘의 노인도 어제는 청춘이었다. 노인이 청춘이었을 때 오늘의 젊은이는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 있다. 즉 오늘은 오늘의 노인들이 일궈놓은 것이고 그

것을 젊은이들이 누리는 것이기에 내일의 몫이 노인들에게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다. 그만큼 노인이 많다는 말이고 이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중이다. 연금이 고갈된다거나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지며 여기저기 노년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노인 하나가 죽으면 살아 있는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안타까움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젊은 이들이 두려워 할 미래를 감아 먹는 염치 없는 세대로 치부가 되는 까닭이다. 노방생주(老蚌生珠)라는 말은 늙은 조개가 진주를 품는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을 거치지 않고 결실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오늘의 노인도 어제는 청춘이었다. 노인이 청춘이었을 때 오늘의 젊은이는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 있다. 즉 오늘은 오늘의 노인들이 일궈놓은 것이고 그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천정부지 의약품 가격 개혁 나선 바이든 행정부... 제약업계와 팽팽한 대립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정부와 제약사 간 의약품 가격인하 협상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가장 큰 정치 의제 중 하나인 약값 현실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다음 달부터 노인 의료보험제인 메디케어(Medicare)가 10개 의약품에 대해 처음으로 제약사들과 직접 가격인하 협상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노년층 납세자 65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지난달 발표한 가격협상 대상인 10개 의약품에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 존슨앤드존슨, 브리스톨마이어스스킵(BMS) 등이 제조한 암·뇌졸중·당뇨병 치료제가 포함됐다.

미국정부 당국은 이번 협상을 거쳐 2026년 의약품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향후 4년 동안 50개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가격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제약사가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Medicare·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시장에서 의약품 공급을 금지당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신문은 "약값 개혁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였다"며 "2015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튜링제약이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 치료제 다라프림 가격을 5000% 이상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책임자 처형하라" 터질 게 터진 리비아, 반정부 시위

열대성 폭풍의 폭우에 따른 댐 붕괴로 사망자만 4000명 가까이 발생한 리비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동부 대홍수 최대 피해 도시인 데르나 사바하 모스크 앞에서 지난 18일 주민 수천명이 모여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아길라 살레흐 하원 의장이 집권적인 포화를 맞았다. 시위대 사이에서 "아길

라는 신의 적"이나 "도둑과 반역자를 처형하라"는 구호가 나왔다. 데르나의 압둘모넴 알가이티 시장의 자택은 같은 날 저녁 불길에 휩싸였다. 알가이티 시장은 현재 정적 처분을 받았다.

리비아 대홍수는 지난 10일 열대성 폭풍 '다니엘'에서 쏟아진 폭우로 지중해와 연결된 강의 댐 2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댐 하류의 지중해 항구도시인 데르나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8일 사망자 수를 3922명, 실종자를 9000여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건물 잔해, 진흙탕으로 뒤덮인 땅 밑의 매몰자는 이미 구조의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향후 사망자로 포함될 수 있다.

생존자도 식량 부족, 식수원 오염, 급류에 떠내려온 지뢰의 위협을 받는다. WHO와 각국 의료 전문가들은 피해 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구 냉장고' 남극마저 녹는 중... 기후 재난 점점 극대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홍수 대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CNN이 17일 "최근 12일 동안 전 세계 10개국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빈곤국이 최전선에 서게 됐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선진국의 산업화가 야기한 이상기후 현상에 재난 대응에 취약한 빈곤국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비아 홍수는 지난 11일 동부 해안가에 태풍 '다니엘'이 상륙하면서 발생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올해 역대 최고온도로 덥혀진 지중해의 영향을 받은 다니엘은 강해진 위력으로 동북부 데르나시에 있는 댐 두 곳을 무너뜨렸다. 도시를 초도화한 홍수로 현재까지 1만1300여명이 사망하고 1만명 이상이 실종 상태다.

태풍 다니엘은 지난 4일 그리스를 먼저 덮쳤다. 1년 평균 강우량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 폭우의 영향으로 15명이 사망했다. 테오도로스 스카이라카키스 그리스 환경장관은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의 지문"이라며 "바다 온도가 높아져 이러한 기상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튀르키예와 불가리아에서도 홍수로 각각 7명, 4명이 숨졌다.

엄청난 태풍 피해를 겪은 곳은 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태풍 사울라와 하이쿠이가 홍콩과 대만, 중국 남부를 강타해 홍콩은 1884년 이래 시간당 강우량이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홍콩시

립대 기후과학자인 추정은 교수는 "한 개의 태풍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구온난화가 초강력 태풍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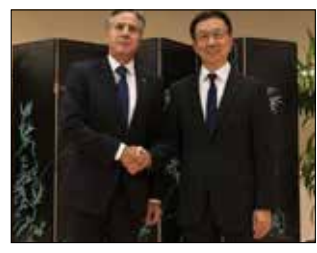
미주 대륙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선 일주일 강우량이 한 달 동안 내릴 비에 해당할 정도로 쏟아져 30명 이상이 사망했다. 버닝맨 축제가 열렸던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는 지난 1, 2일 기습적인 폭우로 참가자 수만명이 고립되기도 했다.

마틴 그린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처장은 리비아 홍수와 관련해 "기후와 (국가의) 능력 문제가 충돌해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구의 온도 조절 역할을 해온 남극해의 얼음이 관측 사상 역대 최소 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현재 남극해에 떠 있는 해빙 면적은 1700만km² 미만으로 영국의 5배 면적이 사라진 것과 같다"고 보도했다. 해빙이 사라지면 바다는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게 된다.

미국-중부주적 뉴욕서 회담...고위급 교류 지속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중 국경부주석과 회동하고 북한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무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양측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개방적인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고위급 관여를 바탕으로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적 행동 등 광범위한 주요 양자·국제·역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대면 외교가 이견 있는 분야에 대처하고,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데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우리가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도 "세계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중·미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과 전세계에 이롭다"고 말했다. 또 "현재 중·미 관계는 다양한 난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중·미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한 부주석 회동은 최근 이어져 오고 있는 미·중 고위급 교류의 연장 선상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17일 몰타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동하고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북러 밀

착을 과시하는 상황에서도 미·중 고위급 교류의 관심이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경제학자 90%, 연준 추가 긴축 전망" ...인플레이션 잡기에 역부족

경제학자 10명 중 9명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시카고대 부스경영대와 공동으로 경제학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난 13~15일)에서 응답자 90%(36명)가 금리를 현재보다 최소 0.25% 포인트 더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학자 47.5%는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0.25% 포인트 오른 5.5~5.75%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35%는 연준이 두 차례 더 긴축에 나서 6.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6%를 웃도는 금리를 제시한 응답자도 7.5%나 됐다.

기준금리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거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FT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제한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서 2024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본 금융 시장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위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오는 20일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은 98%로 나타났고, 연말까지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과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줄리 스미스 라파예트대 교수는 "주택 시장처럼 금리에 민감한 부문이 놀랄만큼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를 둔화시킬 만큼 소비자들의 위축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호 일부는 정책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금리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상당 기간 긴축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60%가량은 첫 금리인하가 내년 3분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금리 인하 전망을 늦춘 경제학자 비율이 지난 6월에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FT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노동 시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경제학자는 세계 최대 경제의 근본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너무 강해 인플레이션을 뿌리 뽑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3분의 2는 내년 말까지 근원 인플레이션이 3%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이들은 석유 공급 감소를 인플레이션 전망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가 글로벌 성장률을 끌어내리며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 청교도 언약 신학의 역사적 고찰

언약 신학은 개혁 신학의 독특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된다. 언약 신학은 신, 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unity and continuity) 전제로 한다. 언약신학은 성경이 신, 구약의 구별된 2개의 성경이 아니라 통일된 메시지를 가진 하나의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16-17세기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개인, 교회, 사회를 포함)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언약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하심을 믿는다.

언약 사상이 성경 전체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고대, 중세 교회 시대는 별로 적극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 의하여 언약 신학이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었다.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인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그의 글에서 언약 개념을 많이 언급했다. 그는 유아 세례 문제에 관하여 재세례파 (Anabaptists)를 반박하기 위해 언약 개념을 사용했다. 역사적으로 츠빙글리 (Zwingli)는 언약 신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츠빙글리 (Zwingli)의 뒤를 이은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유일하고 영원한 성경 또는 하나님의 언약> (Of the One and Eternal Testament or Covenant of God)이라는 매우 중요한 책을 저술했다. 불링거는 성경의 다양한 언약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새 언약은 이전의 모든 언약의 성취임을 주장하였다 (The various covenants of Scripture are organically related, and that the New Covenant was a fulfillment of all the previous covenants). 불링거는 신학 전체를 언약의 개념을 통하여 세웠다. 분명히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불링거는 츠빙글리나 칼빈보다 언약 신학을 더욱 발전시켰다.

칼빈은 성경 해석에서 언약 개념

을 사용하여 신, 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칼빈은 불링거처럼 언약 사상을 자신의 신학을 구성하는 원리 (the organizing principle)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칼빈 (1509-1564)은 언약의 통일성을 가르쳤고, 언약의 관점에서 성례전 교리를 매우 고도로 발전시켰다 (the doctrine of the sacraments in light of the covenant).

카스파르 올레비안누스(Caspar Olevianus, 1536-1587)는 언약 신학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또 다른 16세기 종교개혁자이다. 그는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자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썼다. 카스파르 올레비안누스(Caspar Olevianus)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Ursinus)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이다. 그들은 은혜 언약의 교리를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 사이에 맺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가? 올레비안누스에 의하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졌고,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레비안누스는 삼위일체적인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과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the covenant of works)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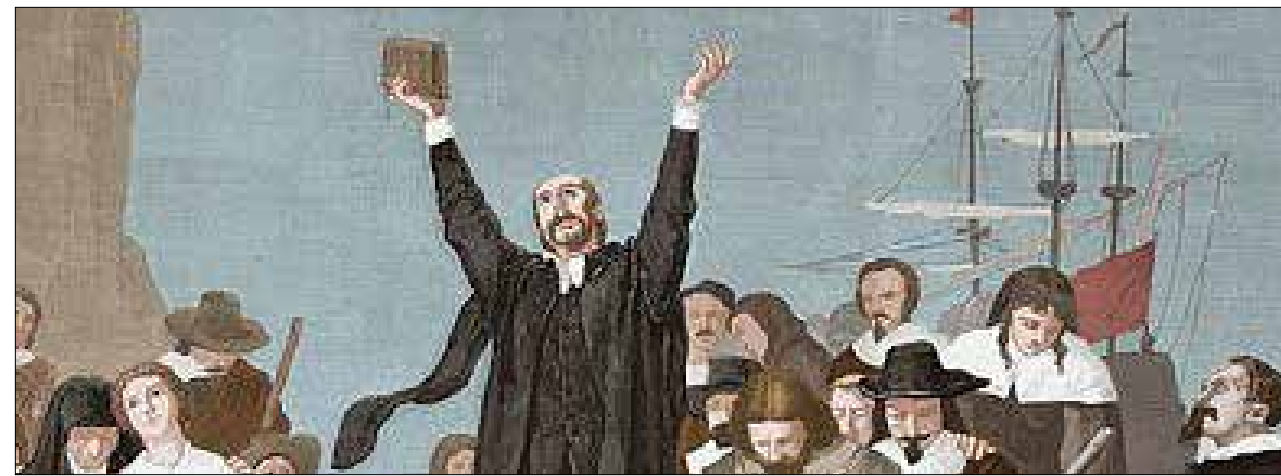
17세기 언약 신학의 기본은 구속의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었다. 그리고 언약신학 발전의 다음 주요 인물은 에든버러 대학교의 로버트 롤록 (Robert Rollock, 1555-1598)이다. 그는 행위 언약의 조건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도덕법 (the moral law of God)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고 가르쳤다. 그에 의하면 도덕법은 시내산에서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까지는 돌판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덕법은 인간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었다. 이것은 행위 언약 사상의 발전에 있어 롤록의 큰 공헌

중 하나이며, 롤록은 행위언약이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모세 시대에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 은혜 언약인가? 아니면 일종의 행위 언약의 재현인가?

(Is the Mosaic Covenant some sort of a re-manifesta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or not?) 이 주제의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된다.

존 머리 (John Murray)를 비롯한 많은 현대 개혁 신학자들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했다. 그러나 메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 교수는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17세기 영국의 개혁신학은 특히 언약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와 같은 캠브리지 신학자들은 모두 언약 신학자들이다. 그들의 신학 사상은 언약 신학이 기초가 되었다. 특히 윌리엄 에임스는 당시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칼빈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존 프레스턴(John Preston)은 1629년에 쓴 그의 저서 <새 언약> (The New Covenant, or the Saints Portion)에서 언약 개념을 강론했다. 존 프레스턴은 행위 언약의 조건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고 가르쳤다. 프레스턴은 로마서 2장에 기초를 둔 도

덕법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의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캠브리지 칼빈주의자인 존 볼(John Ball)은 1645년에 <은혜언약에 관한 논문> (The Treatise on the Covenant of Grace)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언약신학에 대한 또 다른 고전적인 훌륭한 책이었다.

그리고 제네바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의 제자요, 칼빈의 뒤를 이어 개혁 신학을 발전시킨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와 화란 신학자 요한 코케이우스(Johan Cocceius 1603-1669)는 뛰어난 언약 신학자들이다.

그리고 17세기의 대륙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언약 신학자는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이다. 튜레틴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쳤고, 특히 언약 신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조직신학 교과서 <변증신학강요>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처볼드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주었고, 찰스 핫지의 <조직신학>이 나오기까지 개혁

에 대한 언약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론, 성례전 교리, 율법 교리, 기독교 자유 교리 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에 언약 신학의 영향은 대단하다. 언약 사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코케이우스(Johan Cocceius, 1603-1669)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독일 브레멘 (Bremen)에서 태어나 네덜란드의 윌리엄 에임스 (William Ames) 밑에서 공부했고, 라이덴 (Lyden) 에서 가르쳤다. 윌리엄 에임스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청교도 학자인데, 많은 시간을 화란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벌어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파의 논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요한 코케이우스는 윌리엄 에임스의 제자로서 1648년 하나님의 언약의 교리에 관한 책을 <The Doctrine of the Covenants and Testaments of God> 썼다.

그리고 요한 코케이우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화란의 언약 신학자 헤르만 위치우스(Herman Witsius, 1636-1708)가 있다. 헤르만 위치우스는 화란 사람으로 라틴어로 저술한 자신의 책 <언약의 경륜> (The Economy of the Covenants)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요한 코케이우스의 작품이 라틴어로 기록되었고, 영어로 번역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 출판된 헤르만 위치우스만큼 영국과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임스 어셔 (James Ussher; 1581- 1656) 가 있었는데, 그는 31년간 아일랜드의 대주교로 있었다 (Archbishop Ussher). 어셔 대주교는 아일랜드 성공회의 신앙 고백서인 <아일랜드 신조> (The Irish Articles, 1615년)의 저자였다. 그리고 그는 조직신학 책 <Body of Divinity> 을 지었고, 이러한 그의 책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에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7장 전체는 언약 신학을 다루고 있다. 신앙고백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의 조직신학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튜레틴의 언약 신학은 그의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글이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 청교도 사회에서는 존 코튼(John Cotton)과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대표적인 칼빈주의 언약 신학자들이다.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자 찰스 하지 (Charles Hodge)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튜레틴(Turretin)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개혁주의 언약 신학의 전통을 계승했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sgc.com 170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후 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facebook.com/srscs 1645 Beverly Blvd.,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학교: 오후 1:20 영어권 (영·스·K·C·K·영·드·프·스·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장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성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사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세계선교회</h3> <p>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8-13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enter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h3>살비지 사랑교회</h3> <p>(Seaf Beach Se-F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살비지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7일) Clubhouse 3 room 1(수)</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사역원</h3>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선교회총회총무)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역자 3. 목회자 4. 가정사역자 5. 영성사역자 6. 네트워킹사역 www.epi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714) 446-6202, www.gaoemc.org / www.bh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W찬양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dock.kim@biola.edu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히슬즈사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어장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주기도문 (Lord's Prayer)

동구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저술가이면서 또 신학교 교수인 아리차드 범브란트 박사가 원래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가 공산화 되고 나서는, 이 범브란트 박사는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는 어두운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석방이 되고 서방으로 빠져나와서, 공산권 선교회를 만들어 노구를 끌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잡혀서 3년 동안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각을 나눌 만한 말벗도 없었습니다. 일을 책도 없고, 자기 생각을 써 볼만한 종이도 연필도 없었고, 심지어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파란 풀포기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햇빛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3년을 버티면서 혹독한 굶주림을 가지고 시름을 하고 있었단다 합니다. 매일 주는 것은 더러운 감자껍질을 가지고 만든 스프였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 조각을 주는 것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주자주 끌려 나가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은 범브란트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스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뒀습니다. 마약이 든 스프를 계속 먹어대니 점점 정신세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억력 상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강리켜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로서 그 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신학적인 지식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언어학자였지만 모든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아어를 조금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

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서글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다시 고쳐 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암흑상태를 2년 동안 버티면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되고 음식이 조금씩 질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몇 달 지나자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차용호 목사 (샌디버한인정교회)



버렸던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거기에 첨가하고, 드리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그 기도문에 담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회복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한 번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혹독한 감옥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주기도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사탄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다 우리의 혼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정신, 원칙,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담고 잊지 않고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은혜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1) 이런 데가 있네...

정기모임에 처음 참석하는 분들의 눈이 동그해지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거 같습니다. '신기하네... 혼자된 사람들이 많은 건 알지만 이렇게 온통 싱글들만이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데가 있네?'라고...

물론 다양한 모임을 통해 만난 분들도 있지만,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느라 외부와는 담을 쌓고 살면서 세월을 보낸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가시는 분들 역시도, 부부로 참석하는 분들 앞에 스스로 위축되어 예배만 참석하곤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온 한 여성분은 다른 싱글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 하면서 남성 멤버에게 '무얼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는 질문을 해서 다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제 사역을 보며 '정말 좋은 일 한다'고 격려해 주며 힘을 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를 두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선에 들게 되고 장수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니, 남은 생애 혼자서 살 자신이 없는 듯 배우자를 찾으려하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때로 단체 내 커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도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사역자로 오랜 기간 지내오면서 그들의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누가 낫고 못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여러 면에서 맞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서, 또한 '이런데 실패한다면 자녀들을 포함해서 주위의 친지나 지인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이미 가까워진 경우에는 참고가 전혀 되지 않고 관계만 불편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10여 년 전 초창기 때만 해도 서로 가까워지는 두 사람을 보게 될 경우, "참석하는 교회의 목사님 모시고 국수라도 대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올리고 법적인 절차도 마쳤을 때, 당연히 닥칠 (초혼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에) 위기를 건널 자력이 생기지 않겠는가?"하며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로 서로 뜨겁게 토론도 했었지요. 하지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듯이 이 모임에도 큰 변화가 있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도 못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크고 비밀한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지 않은 채 안타깝게도 부담 없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말씀 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 6:10)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도자가 할 것은 본인 스스로 기도해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만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뜻이라면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는 예식을 거처라고 권하면서 아무쪼록 고생 끝에 만난 그들의 노후가 주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Includes church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

목자의 마음



김제이 목사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목사이기 전에 나는 아이들의 아빠였나보다

지나간 34년의 목회기간동안,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엄마 품에 안겨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던 소리, 하

나 하나 태어날 때마다 아이를 보며 웃고 울던 엄마 아빠의 구슬 같은 눈물들.... 어느 순간 웅얼이를 하다가는 뉘뉘뉘뉘 한

걸음씩 걸음마를 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말을 시작하면서는 재잘재잘... 마냥 즐거운가보다. 귓가에서 맴도는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때 많은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뻐할까?? 그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 가방을 메고 코를 흘리며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떠든다고 메모도 받아 온다. 엄마 따라 기도도하고 박수치며 찬양도 한다.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배짱 쥐게 하는 성극 배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크지 않고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잠시...

어느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사춘기를 맞이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다. 멋도 내기 시작한다. 좋아하는 인기

스타도 있다. 운동선수도 있다. 엄마하고 아빠한테도 말대꾸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락스타인양, 클래식 연주자인듯 약기도 연주하고 싱어로, 기타리스트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교회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사내아이들은 근육도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살짝 살짝 화장도 한다. 여자 친구가 있다는 아이, 남자친구를 짝 사랑하는 아이, 그 때는 그 아이가 최고 멋있는 것 같았고 최고 예쁜 것 같았겠지... 헤어지면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구슬방울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던 아이들. 우는 눈물도 닦아주고 어깨에 기대어 울게도 하였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20시간이 넘도록 운전전을 하며 미국 전역을 돌고 쭉잡을 자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시간, 동남아에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팀원 전체가 삭발을 하고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였던 대학시절의 동남아 선교... 그렇게 교회에서 친형제처럼 잘 자라주었다.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나는 목사이기 전에 아이들의 아빠였나 보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고 직장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장해서 자기 사람 찾아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 하나 시집보내고 한 녀석, 한 녀석, 장가보내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서운할까. 얼마 전, 30대 마지막 남은 녀석이 나이 40이 되어 지난 토요일에 장가를 갔다. 어느 교회든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좋은 말은 해 주지만, 여자를 따라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니 마음이 서글서고 아프다. 축하해 주었지만, 기도는 해 주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내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 아빠의 마음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우리 교회로 시집오고, 장가는 새로운 자식들을 돌보려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꼬맹이들을 키우려한다. 나도 다른 엄마 아빠처럼 늙어가나 보다.

(drjeykim@gmail.com)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창립 41주년 감사예배 및 신임 김배선 목사 파송 감사예배가 끝난후 신임 김배선 목사와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창립 41주년 감사예배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담임 김배선 목사) 창립 41주년 감사예배 및 신임 김배선 목사 파송 감사예배가 지난 10일 오전 8시와 11시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정용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호산나 성가대의 '사랑하게 하소서'란 찬양에 이어 잘스 캐롤 장로(1부)와 김규태 장로(2부)의 기도

에 이어 김배선 목사가 데살로니가전서 1:2-8절의 성경본문으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 김광철 장로의 소개로 김배선 목사가 소개되었고 환영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김배선 목사는 감신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드류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미국에서는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부담임목사로 사역하다 역시 하와이에 있는 올리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해 왔다. 그리고 금년 7월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로 파송받은 김

목사는 이석부 목사(현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의 후임으로 5대 목사로 부임했다. 담임목사의 감사인사 후에 여성훈 목사(전 감신대 교수)가 축사, 이은철 목사(연합감리교 은퇴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고 이 교회 2대 목사였던 윤선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는 1982년 5월 고 김건도 목사가 정에서 10가정이 모여 예배 드린 것으로 시작되어 그해 9월 사우스베이중앙감리교회란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 1993년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로 개명하고 1997년 12월 윤 윤선식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 후 3대 정성용 목사, 4대 이석부 목사의 뒤를 이어 김배선 목사가 제5대 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이날 평소 윤선식 목사와 가깝게 지내던 연합감리교 원로 목사들 가운데 정용치 목사, 정소영 목사, 김낙인 목사 등도 예배에 참석하여 이 교회 창립 41주년을 축하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협 주최 사랑의 찬양제에서 참가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남가주장로협 주최 사랑의 찬양제 열려

'주님의 향기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찬양제'

남가주장로협의회(회장 오승홍 장로) 주최 제15회 선교와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18일(주일) 오후 5시 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렸다. 오승홍 회장은 "이웃돕기 사랑의 찬양제를 계획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 순서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며 "합창제를 통한 귀한 열매가 사랑이 필요한 주위 이웃을 도우며 그들에게 참 사랑이신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서경원 장로(분회 총무) 사회로 열린 찬양제는 소울가야금합주단(디렉터 장경선, 실

비치 한인합창단(지휘 백경환 목사), 남가주장로성가단과 중창단(이상 지휘 장진영), 남가주이화여고동창합창단(지휘 민재희), LA목사중창단(지휘 서문옥 목사),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칸투스남성중창단(지휘 장상근), 나성영락교회 3부성가대(지휘 박현진)가 출연하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찬양제는 참가자들이 함께 연합으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장진영 지휘자의 지휘와 윤경미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 부른 뒤 민경엽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찬양제가 열리기전 이득표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수석부회장)사회로 열린 예배는 오승홍 장로가 회장인사말을 전했으며 정도영 장로(분회 증경회장)가 기도했으며 민경엽 목사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대하 20:22,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성공하는 개인전도를 위한 세가지...

(2면에서 계속)

세례는 이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선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심이다. 우리 앞에 놓인 길, 기쁨, 시련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한다.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는 우리

의 삶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주님께도 그러하셨듯, 우리의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장례식도 이 사실을 기념할 것이다.

전도는 결코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이 아니다. (물론 전도에 은사가 있는 일부가 있을 수 있다.) 전도는 단지 일회성의 논쟁하는 대

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전도가 반복해서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또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일어나는 지속적인 개인적인 목회 활동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by Sean McGeever, TGC



남가주주님의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에서 오해식 목사가 축하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

"우리의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돼 갈"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가 17일(토) 오후 6

시 성황리에 열렸다. 최현규 목사는 "저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를 허락하

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오늘 불리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감사음악회는 최현규 목사가 환영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음악회는 본교회 연합성가대, 크라이스트 우클레레 연주, 크라이스트 빅밴드의 색소폰 연주, 스팅스 어린이 찬양대, 본교회 장구반 등 본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찬양팀들이 은혜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송의 코러스(지휘 이선경), 경기동문 가축합창단(지휘 이선경), 배재코랄(지휘 김문현)이 찬조출연하여 이날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음악회는 참가자들이 연합으로 '용서하게 하소서'와 '그의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를 부른 뒤 오해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9월 정기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9월 정기 예배

LA 남부지역에 있는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 9월 정기 예배가 지난 9

월 6일(수) 오전 8시 성서장로교회(담임 정종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고창현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이황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담임)의 기도,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담임)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안 목사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합심 기도의 시간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위하여,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하여,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 희생자들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고 윤 목사(한인소망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성서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로 오찬을 나눈 목사회는 오는 10월 월례회를 10월 4일(수) 산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김인중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홍인석 목사) 주최로 김인중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9월 25일(월) 오전 10시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 "건강한 목회자, 행복한 목회"를 주제로 열린다.

▲문의: 뉴저지한인목사회 njkaca@gmail.com, 뉴저지동산교회 201-229-1561

뉴욕효신장로교회, 커피학교 기초반 모집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드립커피를 통해 섬김과 선교의 기회를 얻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커피학교 기초반을 모집한다. 강사는 손문성 선교사(커피선교회)이다. 주말반은 9월30일(토), 10월1일(주일) 오후 3시부터6시까지이며 주중반은 10월5일(목), 10월6일(금) 오전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인원은 12명내이며 등록비는 100불이다.

▲ 문의: 718-762-2525

필라교협, 복음화 대회

필라교협(회장 채왕국 목사)은 류응렬 목사(와싱턴 중앙장로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9월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8시 필라제일장로교회(담임 강학구 목사)에서 복음화대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5-646-9500

필라 한인음악인협회, 제 36회 정기연주회

필라델피아 한인음악인협회(회장 박해란)는 제 36회 정기연주회 (한국 가곡의 밤) 연주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에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제 1예배실에서 열린다. 티켓은 20불이며 당일 구매가능하다.

▲ 문의: 215-499-0320, 215-206-9098



제 4회 온 가족 가을 축제 수퍼 히어로 스킷

퀸즈한인교회, 제 4회 온 가족 가을 축제

'KCQ 멈추지 않는 온가족 가을 축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 '제 4회 온가족 가을 축제'가 9월16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본 교회에서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회 앞마당에 마련된 메인 무대에서는 재즈 라이브 밴드와 클래식 성악가들의 음악, 퀸즈장로교회 '하랑예찬'팀의 워십댄스의 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가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 가족

사진관, 페인팅 콘테스트, 서초에 물감들이기, 놀이시설 등 다양한 부스도 준비됐으며 푸드코트에서는 핫도그, 햄버거, 떡볶이 등 다양한 스낵과 물, 솜사탕, 팝콘, 나초치즈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커피향기를 자극하는 핸드 드립커피, 시원한 냉커피, 에이드를 맛볼 수 있는 카페도 마련됐다.

마지막 이벤트에는 KCQ 유스부의 신나는 댄스와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준비한 수퍼 히어로의 스킷과 예배, 행운권 추첨으로 진행됐다.

수퍼 히어로의 스킷의 내용은 '바비의 친구 아맨이 타노스와 아이어맨에 의해 인형이 되고 바비는 인형이 된 친구 아맨을 되돌리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토르, 벤투맨, 스파이더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답을 찾은 목사님은 "기도 (막 11:24)"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전했다.

믿음으로 기도한 아맨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타노스, 아이어맨, 토르, 벤투맨, 스파이더맨, 바비 등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홍현숙 기자>

수그리스도이다. 이 선물은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은 퀸즈장로교회 한국어예배와 중국어예배로 구성된 주일 양상블 섹스폰 연주와 중국어 예배부 찬양팀, 워십팀이 노방전도를 더 뜨겁게 했다.

예배 전 노방전도팀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중추절 초대장과 전도지를 전달했다.

중추절 복음·음악전도회는 9월23일(토) 오후 4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한국어 동역도 준비된다.

<홍현숙 기자>



노방전도회에 참석한 모두가 연주와 찬양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중국어예배부

'중추절 복음·음악 전도회 초대를 위한 노방전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국어 예배부는 9월17일(주일) 오후 5시30분 퀸즈도서관 (Queens Library)에서 '중추절 복음·음악전도회' 초청을 위한 노방전도를 열었다.

노방전도 후 드러진 예배는 황웨이 전도사 사회, 기도를 시작으로 주일 양상블의 섹

스폰 연주, 첼위지 목사(퀸즈장로교회 부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첼위지 목사는 "선물을 전달할 때 받는 사람에게 맞게 전달해야 한다"며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죄인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예



개강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3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Transform (Reform+Perfor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2023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보스턴장로교회 장성철 목사, 김성국 목사를 강사로 "Transform(Reform+Perform)"이라는 주제로 9월5일(화)~7일(목)에 열렸다. 첫째 날 개강예배에서 장성철 목사는 "태초에 (창세기 1:1)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 목사는 "급변하는 문화적 혼란의 시대에 보스턴이나 뉴욕이 복음의 최전선이며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며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전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퀸즈장로교회 교인들과 함께 1일 부흥회로 드러졌다. 장성철 목사는 "이때로부터(마태복음 16:21-28)"를 제목으로 전한 말씀을 통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손에서 놓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 학문이 들어와서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런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날 저녁 신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에서 학장 김성국 목사는 "No Turning Back(누가복음 9:57-62)"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 맞다면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라! 돌아서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십자가만 보고 달려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설교 후 교훈과 수여와 장학금 수여식, 신입생 환영회로 개강부흥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연례기도회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아낌없이 부어주리라"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 2023 연례기도회가 "복음, 평화, 변영"의 주제를 가지고 9월 16일(토) 오전 8시 프라미스교회(옛세마네성전)에서 열렸다.

연례기도회는 이명석 부이사장 사회로 시작 돼 개회선언 정훈(준비위원장, 간사), 대표기도 최은중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박해용 장로(부회장), 특별찬양 뉴욕장로성가단, 말씀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연행 목사는 "성결이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3:5)"라는 제목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성이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마음껏 자유롭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있어야 한다"며 "국가조찬기도회를 기점으로 우리 세계 수도인 뉴욕에서 대대적인 성결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 목사는 설교 후 "주님, 제가 지도자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성결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요청했다.

특별기도는 △대한민국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납태현 장로(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 △세계평화와 변영을 위하여 전병삼 장로(뉴욕장로성가단장) △한인사회와 교계의 오직 복음을 위한 화해와 일치 위하여 황규복 장로(뉴욕한인장로연합회장) △차세대에 신앙의 유산전수와 차세대를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 부흥시켜 주소서 최형석 목사(프라미스교회 교육총괄 담당) 순으로 인도했다.

뉴욕지회장 손성대 장로는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지난 57년여 동안 한결 같이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 나라에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를 지원한 활장업은행장(KEB 하나은행)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회장), 박근재 목사(뉴저지교협 회장)가 축사 했다.

이날 장세할 장로의 광고와 방직각 목사(뉴욕지회 고문)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연례기도회를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설립 53주년 연합감사예배 후 사진촬영 했다

뉴욕장로교회, 설립 53주년 감사연합예배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 설립 53주년 감사연합예배가 9월17일(주일) 오전 10시 온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러졌다.

두나미스 찬양팀의 찬양과 최순성 목사 인도로 열린 예배는 기도 흥성로 장로, 찬양 글로리아찬양대, 설교 김성준 목사(영어), 김학진 목사(한국어)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준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라 (민 6:4-5)' 김학진 목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엢 4:13)'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김학진 목사는 "사도바울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잘 성장할지를 말해 주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함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뉴욕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성찬식 시간을 가졌다. 김학진 목사는 "설립 53주년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같이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찬식 후 서로 손을 잡고 '보혈을 지나'를 함께 찬양했다.

김학진 목사의 광고, 축도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30년 근속기념 감사패를 강창모, 김미숙, 강무형, 임선덕, 김영중, 안이경, 정혜숙에게 전달했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9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향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금) 오전 국제신학교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금) 오후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 (대회장 하민규 목사) 010-4466-0545

1(금) 저녁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토) 오전(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정책위원회 Conference 장소: 본부(남서울중앙교회6층) 서울 예수기쁨교회 (김효진 목사) 010-3700-3761

4(월)~5(화) 일본 (JAPAN) 오사카 중앙교회 Center, GoodTV 부흥성회 해외 Conference 주회 : GoodTV부흥성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6(수)~7(목) 일본 (JAPAN) 오사카 Discippling, group M.T
7(목) 일본 (JAPAN) 간사지방 Discippling, group M.T

8(금) 정오 시카고 성회 준비모임,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B-1
9(토) 오후 서울 Maranatha 신학대학원 대학교 010-8331-3431
10(주일)~13(수) 세계성지순례 대회 제주권대판스 (대표고은 장성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14(목) 오전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사무총장 이강복 목사) 010-4734-7100 장소 : HW Convention Center (하림각)
14(목)~15(금) 새벽 대구 햇빛연예인교회 (정혜영 목사) 010-8014-8121
15(금) 저녁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제 233차 해외성회 (233rd Overseas Assembly) 주회 : 韓美 부흥사업
韓美 연합부흥성사단(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동유럽 영적각성특별회) 010-2238-3999

18(월)~20(수) 헝가리 (Hungary) 고평마을 (유립 영적각성센터 신은규 선교사) 주회 :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1(목)~22(금) 독일 (German) 체코(Czech) 오스트리아 (Austria)
23(토)~24(주) 체코(Czech)
25(월)~26(화) 슬로바키아 (Slovakia)
27(수)~28(목) 유럽 기독교성지 탐방
29(금)~30(토) 저녁 서울 Maranatha 신학대학원 대학교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이대용 노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41회 정기노회

이훈우 목사, 노회선교사로 파송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이대용 목사) 제 41회 정기노회가 12일 오전 10시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열렸다.

이대용 노회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기도 박대원 목사, 성경봉독 양인수 목사, 설교 이대용 목사로 진행됐다.

이날 백현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있었으며 전태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원점명과 이대영노회장의 개회선언이 있는 후 각 부 보고와 안건 토의가 있었으며 금번 노회를 통해 이훈우 목사를 노회선교사로 파송키로 결의했다.

매가 맺혀야 하며 어디서든 영성의 향기가 전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목자의 영성을 지닌 자로 목자의 영성을 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자"고 설교했다.

이날 백현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있었으며 전태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원점명과 이대영노회장의 개회선언이 있는 후 각 부 보고와 안건 토의가 있었으며 금번 노회를 통해 이훈우 목사를 노회선교사로 파송키로 결의했다.

(이성자 기자)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중보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합심기도하고 있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중보기도회 열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 세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앞두고 이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제천기도센터에서 14일(목) 오전 10시에 열렸다.

강순영 목사는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올라오기를 열망하십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첫째 연합과 회개이다. 우리기도가 생기면서 각 도시별로 부흥성지투어가 시작되었으며 다민족 리더들의 잠을 깨우고 있다”며 “다민족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연합했다.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 뜨거운 사랑을 가진 다민족들의 기도모델이 만들어져 미국의 각도시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폭발하여 역사 이래 없는 가장 큰 부흥을 주셨으면 하고 그 원인이자 열매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태광 목사(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기도회는 강순영 목사가 비전캐스팅 했으며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다. 합심기도는 강순영 목사가 각 교회 담임목사와 교회를 축복하게 하소서, 홍신우 목사(주님세운교회)가 ‘한인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소서!’, 김철민 장로(CMF 선교원)가 ‘신앙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전혜숙 목사(은혜한인교회)가 ‘2023 다민족연합 기도대회를 축복하소서!’,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가 ‘남가주지역 기도사역을 축복하소서!’, 김요셉 목사(성교도 기도동역자)가 ‘천교도 신앙을 회복시켜 주소서!’, 전영숙

강도사(감사한인교회)가 ‘미국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가 ‘선교사와 선교사를 축복하소서!’, 안현숙 목사(CBS중보기도팀)가 ‘미국 문화가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가 열리기 전 전혜숙 목사(은혜한인교회)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황상식 안수집사(은혜한인교회 중보국 국장)가 개회기도를 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한기홍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사역은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었다. 기도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 바랍니다”며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셔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셨다. 우리는 기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열렬한 기도의 영을 받아 이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바란다. 열렬한 기도의 영을 받으려면 스첫째,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 셋째,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영적전투에서 후방지원을 하는 팀이 중보기도팀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남가주와 미국과 전세계에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토크스제일장로교회 ‘좋아성’ 자녀양육 세미나

“아이들을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가르쳐야”

토크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자녀양육세미나를 15일(금)과 16일(토) 양일간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고창현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15일(금)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첫날 세미나는 이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말씀으로 무장시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첫날 ‘창조론적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이영숙 박사가 강의했다. 이 박사는 “이시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성교육이며 우리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SP107을 만들었다. 이는 이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며 교육에 의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미국은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려고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지 못한다. 자녀를 지킬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부모인데 부모가 알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며 “공교육에서 교육의 내용은 CSE는 유네스코에서 2009년에서 만드는 글로벌 성교육 교본을 만들어 전세계로 보냈다. CSE(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는 포괄적 성교육인데 성을 하나의 문화로 가져왔다. 이는 동성애는 물론 성전환까지 하나의 문화로 취급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내용을 허용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숙 박사는 “좋아성 세미나는 좋은 성품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세미나이다. 첫째, 아이들을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가르쳐야 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 창조론적 요소를 민감하게 찾게 하는 것이다. 둘째,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한다. 넷째,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양육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미디어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학교로 갈지 홈스쿨링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귀한 창조의 세계를 말살하려는 어둠의 공격은 가정을 깨기 위함이고 인생을 처절히 깨서 동물처럼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둠의 공격에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박사는 둘째날 오전 ‘나 다음’이 아닌 ‘나됨’이라는 제목과 ‘성 진리’라는 제목으로 2강과 3강을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좋아성 세미나에서 이영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에피포도예술과문학, 각 기념행사 한국과 미국에서 개최

창립 28주년 및 제 14집 에피포도 출판기념, 제 27회 예술상 시상식

에피포도예술과문학(대표 백승철 목사)이 주관하는 열네번째 에피포도 수상집 ‘모서리에서 미끌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보라’ 출판기념과 제27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 에피포도 창립 28주년 기념식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한국 행사는 10월 16일(월)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될 한국 행사는 에피포도 예술인협회 한국본부(회장 유영애 시인), 사무총장 유석암 시인이 전담한다.

한편 미국 행사는 10월 21일(토), 오후 4시에 브레아 위치한 ‘사모하는교회’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정정숙 시인의 ‘만남’, 김성교 시인의 ‘섬이 없는 바다에는 고동어가 살지 않는다’ 첫 번째 시집 출판기념 축하도 함께 한다.

제27회 에피포도예술상 수상작가는, 문학상대상 안호원 시인(한국 서울) 시집 ‘귀의’, 신인문학상 박득희 시인(한국 서울)의 ‘그리움(외 3편)’, 신인문학상(한국 부산) 조미나 시인의 ‘이불(외 4편)’, 감성평실은 정정숙 시인(미국 CA)의 ‘포도르 포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포토그래피 어워드 시인, 수필가로서 이미 문단활동을 하고 있는 서용선 사진작가(한국 서울)가 수상하게 된다.

또한 이번 문집에 세계한인 기독교인문학회(회장 이영선 목

사. 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주최한 제8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 수상작품, 최우수상 이윤진(CA)의 ‘당신과 함께 하는 꽤 괜찮은 비기닝’, 우수상 한익승(NJ)의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 장려상 문지혜(CA)의 ‘작은 자였기에 받아 누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수록됐다.

에피포도는 1995년 10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승철 목사의 쪽지글로 시작된 종합 예술단체이다. 에피포도는 헬라어로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사모하다.”의 뜻이 담겨있다(빌립보서 1:8). 미국 행사 참가 회비는 \$25이며 자세한 것은 에피포도예술인협회(www.epipodo.com) 714-907-7430로 문의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LA동부장로교회 창립50주년 감사행사

LA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 창립50주년 감사행사가 24일(주일)에 거행된다. 일정은 오전 11시 창립50주년 감사예배, 오후2시 감사찬양제, 그리고 오후 4시 감사축제이다.

▲ 문의: (213)383-3261

유니온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예배

유니온교회(담임 구자민 목사) 창립 43주년 기념예배가 24일(주일) 오전 11시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려진다. 예배후 온교우 한 마음 체육대회를 갖게 된다.

▲ 문의: (626)858-8300

‘미주 성도들을 위한 선교적 삶’ 세미나

라이트하우스 엘바인교회(11 Musick, Irvine, CA 92618)는 선교적 삶을 위한 세미나를 23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송동호 목사(현, 다하나국제교회 목사, 나무미션(BAM전문 파송단체 대표)이며 참가비는 \$20(점심 제공)이다.

▲ 문의: (562)926-4700, admin@onlyinlove.or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제 22회 창작 성가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에서는 ‘제 22회 창작 성가제’를 24일(주일) 오후 6시,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 있는 Anaheim United Methodist Church (애나하임 연합 감리교회) 1000 S. State College Blvd. Anaheim, CA 92806에서 갖는다.

▲ 문의: (760)623-9380, (310)381-9835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이성진 박사)는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식을 24일(주일)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213)388-1000, (213)385-2322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부흥집회 및 특새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창립 47주년 기념 부흥집회 및 특새세례기도회를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갖는다. 특새세례기도회는 26일(월)부터 28일(목)까지 이성현 담임목사를 강사로 갖게 되며 부흥집회는 류재덕 목사(시에라 마드레 UMC담임)를 강사로 29일(금)부터 10월1일(주일)까지 갖게 된다.

▲ 문의: (808)488-3018



좋은마을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예배에서 신원규 목사가 인사말하고 있다

좋은마을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예배 드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나라와 공존할 수 없어”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창립 39주년 기념예배가 17일(주일) 오전 11시45분에 거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원규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전병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광순 장로의 특송, 최유나 학생이 성경을 봉독했다.

이날 ‘하나님 나라와 세상나라(요 18:36-3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신원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나라와 전혀 다르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나라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하나님나라와 세상나라 중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삶의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 질문한 뒤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나라가 전혀 다름을 밝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빌라도는 세상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바울서신에는 어느 한곳에도 로마제

국의 영토 확장이나 전쟁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나라의 영토 확장에 관심이 지대하다. 세상나라는 하나님 섭리주권에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나라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교회는 영원하다.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 39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엘런메이트 목사(세인트폴 루터런 교회 담임), 이영진 목사, 김법택 목사(한국 GOG영성교)가 축사했다. 이어 본교회 김동진 장로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은혜진리성가 대 특송이 있었다.

좋은마을교회는 지난 1년동안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물론 본 교회 출신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빠르게 양육되고 자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회기도그릇에 중보 기도 희망신청을 한 261명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왔으며 이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한 선속 권사와 석찬욱 권사가 중보기도자 간증을 했다. 또한 중보기도대상자 중 홍동재 학생, 김미혜 집사, 최에스터 학생이 감사했으며 신지현 집사(한국), 홍원라임 선생(몬타나)의 답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교회기도 그릇에 담은 261명의 자녀들을 호명하는 시간을 가진 뒤, 신원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 개최예배, 오정호 목사 총회장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9월 18일(월) 오후 3시에 전국에서 모인 총회장들이 총회의 모든 일정이 성총회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살롬부흥총회, 일어나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예루살렘 총회는 살롬부흥총회를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살롬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문을 복음으로 여는 살롬이다"라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권순웅 총회장은 우리 교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인 브라질장로교회 호베르토 브라질레이아 총회장, 제주선교센터 건축기금 모금에 나선 미국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7년간 이집트에서 사역한 김신숙 선교사, 브라질장로교회와 우리 교단 간 협력 사역에 힘쓴 고영규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08회 총회 개최예배 중에 총회장 권순웅 목사로부터 감사패를 증정 받는 미주한인예수교총회장 김성국(퀸즈장로교회) 목사



제108회 총회장에 당선된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



25개국 이주민과 함께 한 '오륜 올림픽'

오륜교회, 17일 오륜국제사역부 연합체육대회

서울시 강동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가 17일 교회 인근 동북고 체육관에서 25개국에서 온 400여 명의 이주민과 함께 '2023 오륜 국제 사역부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베트남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체육

대회에서는 '짐볼 빨리 넘기기' '릴레이 짐볼' '줄다리기' '사랑의 훌라후프' 등의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이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베트남에서 온 호앙찌흥아잉씨는 "함께 소리를 지르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면서 "교회에서의 이런 만남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디나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왔다. 그는 "낮선 땅에서 육아하며 힘들었는데 체육대회에 참가해 너무 즐거웠다"면서 "교회에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오륜교회는 해마다 '다문화 가족 초청잔치'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 선물 나눔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올타리 아빠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16일에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유학생을 초청해 성탄 축제도 연다.

김은호 목사는 "우리나라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한국교회는 이주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함께 예배하고 동역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계속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복음게임전도를 아세요?

"아이들 트렌드에 민감해야 전도 효과 커"

"포켓몬도 한몫했다. 이제는 산리오다." 서승원 경기도 안양서로사랑교회 목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유행에 민감할수록 전도의 기회도 커진다고 조언했다. 19일 충남 천안시 하늘중앙교회(유영완 목사)에서 열린 다음세대 콘퍼런스에서 다.

기독교대학관리회(기감) 본부 교육국(총무 김두범 목사)이 'Wake Up'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세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15명의 기감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전했다. 서 목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게임전도'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복음 게임전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고 시간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도 방법이다. 서 목사는 "2020년 교회를 개척한 뒤 2년간 전단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도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해 6월부터 복음게임전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임 종목은 '짱 없는 판 게임'이다. 등수가 적힌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린 뒤 판 위에 붙이면 아이들은 그중 하나를 뽑아 등수에 해당하는 상품을 차지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단 5분간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도 게임이 사용된다. 손가락으로 종이 장난감을 조작하며 아이

들과 묻고 답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선포한다. 서 목사는 "우리는 호객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하루에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 복음을 듣는다"고 자랑했다. 이어 "한번 왔던 아이가 반복해서 찾아오고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며 "한 아이가 1년에 50번씩 참석하는가 하면 많은 아이가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비결은 아이들의 눈높이와 취향을 반영한 게임 상품에 있다. 지금은 포켓몬스터가 아니라 산리오라는 캐릭터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VR(가상현실) 게임 장비를 들고 나가 아이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기독교 콘텐츠 제작사인 '히즈쇼'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지 순례를 테마로 만든 가상현실 게임이 대표적이다.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아기자기한 머리띠나 캐릭터 티셔츠를 착용한다. 서 목사는 "N번방 사건 이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일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졌다"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내 챗GPT 신학 지식은 세계적 석학 수준"

설교자를 위한 챗GPT 활용 세미나

인류의 일상을 바꿀 기술로 꼽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설교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회적 윤리 문제' '신학적 오류' 등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목회전수연구원(대표 양승훈 목사)이 18일 맑은샘광천교회(김현중 목사)에서 '설교자를 위한 챗GPT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원장, 서경원 미래목회전략연구소 대표, 양승훈 목회전수연구원 대표, 김현중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적극적인 활용법을 소개했다.

최 소장은 "현재까지 진행돼 온 기술적 업데이트 추이를 반영했을 때 챗GPT의 지식수준은 3년 이내에 신학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만큼 고도로 발전된 도구를 목회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AI 활용이 초래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을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했다. 최 소장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과연 이 기술의 출처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챗GPT의 원리를 제대

로 알고 활용한다면 그동안 '왜 설교 표절이나 목회 윤리 등이 논란이 됐을까'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목회에서 챗GPT 활용 문제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5명 중 1명(20%)은 챗GPT를 설교 준비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명 중 1명(46%)은 '향후 자신의 설교 준비에 챗GPT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대표는 설교자가 챗GPT를 활용해 설교문을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프롬프트(명령어)의 기본 형태(R-PDIO)를 소개하며 사례를 제시했다. 그가 소개한 기본 형태는 '역할 지정'(Role) '목적'(Purpose) '상세 규정'(Detailed work rules) '대상 지정'(Targeting) '출력 양식'(Output form)이다.

서 대표는 "질문의 디테일이 질 높은 결과값을 도출하는 챗GPT 특성상 더 좋은 설교문을 위해서는 설교자가 목상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챗GPT를 활용하는 목회자들끼리 그룹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프롬프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입력값에 성도의 상황과 성향 등 세부 사항을 추가하면 소개 인화된 사회에서 각 성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 보전=선교" ... 기후위기에 환경-선교단체 손잡았다



산업이나 학문 분야에서 일어나는 융합(Convergence)이 선교 영역에서도 선보인다. 한국교회 선교공동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환경 보전=선교'라는 인식 공유와 함께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KWMA는 오는 11월 7일 서울 동작구 본부에서 살림과 함께 '2023 지구와 선교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직후에는 업무협약도 맺는다. 유미호 살림 센터장은 17일 "KWMA가 환경전문 기관과 함께 포럼을 열고 협약을 맺는 것은 한국교회가

주목할만한 융합 사례"라며 "대부분의 선교지가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어떻게 해외 선교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의 협력은 교육 부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유 센터장은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생활수칙을 나열하는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가장 약한 곳부터 주목해야 하며 그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돼 있다. 환경단체와 선교단체가 힘을 합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악한 선교지의 경우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리비아 대홍수로 사망자만 1만여명에 이르는 점이 대표적이다. 유 센터장은 "선교사들의 사전 훈련과 예방 활동이 지속될 경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릴 뿐 아니라 재난 시 주민들의 생존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피조물의 품성함을 보존하는 청지기임을 강조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빈곤국은 기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세계적인 빈곤과 기후변화의 문제가 함께 긴박하게 다투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다.

180년 역사의 글로벌 선교단체인 인터서브는 2018년 10월 회의를 거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역'을 단체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조셉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선교"라며 "망가져가는 생태와 기후위기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증명할 선교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국회의는 신천지 교리 홍보 위한 위장행사

신천지 행사 논란... 규모 확 줄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18일 세계 평화와 종교 연합을 내세운 이른바 '만국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행사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신천지 교세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내세우는 세계 평화는 허울에 불과할 뿐 결국 이단 교리 포교의 장이 될 것이며 주의와 경계를 요청했다.

신천지 유관 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9주년 기념식'(만국회의)을 개최했다. 신천지가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꼽힌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세계여성평화그룹(WWPG)과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역시 신천지 유관 단체다. 신천지 고위 간부 출신인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평화라는 구호를 내세워도 결국은 이만희 교주를 평화주의

자라 내세우며, 신천지 교리를 홍보하려는 위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내부 신도를 결속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만국회의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기존엔 대형 경기장을 빌려 대규모 군중이 참여한 데 반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됐다. 신천지 교세가 위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신 소장은 "신천지 측은 외부 방호대 대규모 행사를 못 연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이제는 예전 규모의 반도 안 모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면예배 출석 인원도 감소했다는 정황이 있다. 그만큼 신천지 측에서는 위기감을 느껴 이 같은 행사를 더 개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7강(신명기 27-34장) 모세의 3차 설교를 중심으로(3)

이제 모세의 3번째 설교가 마치고 모세의 삶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의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신 31:1-3).

모세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 다시 한번 말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때 칠년 안식년의 초막절이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신 곳에 모여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합니다(신 31:7-11).

나는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셔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신 31:14,1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하여 이 노래가 그들이 하나님을 떨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후에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입니다.

를 앞서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신 31:23).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당할 어려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신 31:20-22, 32:1-44). 이 노래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요 그들을 지으신 이시요 그들을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하며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 합니다.

그러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

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 32:46,47)며 피를 토하듯 마지막 말을 합니다.

모세의 축복

모세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신 32:48-52).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신 33:1-29). 모세는 그의 축복 끝에서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도다'(신 33:26,27,29)라고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세워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신 34:5). 그러나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고(신 34:6) 유다사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변론했다고 합니다(유 1:9). 모세는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신 34:7). 40년 전에 모세 나이 80일 때 이미 노인이었음에도 40년간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신앙 에세이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교회)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무엇을 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멋지게 성취하든지,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좋은 재능을 부여 받았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의 고백입니다. 마치 세상이 변하고 내 인생이 무너져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굳은 결심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이 부러워할 재능이 없어도 괜찮다 역사가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대도 괜찮다

우리가 심장 속에 간직할 것 한 가지 있으니 나를 지으신 분, 그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며 바라시는 것 한 가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너그럽고 따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 생애 주님 앞에 갈망하는 것 한 가지 있으니 순간마다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 바라보다가 영광스러운 날 대양 같은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preachchrist@kcpc.org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jok, Hongmeili, Baskin, Bannell, Boston, PCA, Alkan, Anger, Young, Killen, Westminster, Tacoma, and others.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마 10:30-33) 찬 96장**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방법은 나의 말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말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속지 말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의 말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말을 한다면 이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나에게에는 주님이 없다고 하는 증인이 된다. 나의 삶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깨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존재하라.

화 **내게 나타나는 자존심의 정체를 알고 대처하라. (마 10:38-39) 찬 421장**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마 10:38)
죄의 성품에는 나 자신의 자존심이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악한 영의 생각이다. 이러한 자존심의 정체를 정말 미워하여야 한다. 자존심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불행의 탓에 빠진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니 주님에게 대항하는 자존

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알고 사랑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존심을 따르지 말고 위하지도 말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자존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자존심의 위력이 약화되고 나에게서 잠시 물러갈 것이다.

수 **주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 앞에서 조심하라. (마 10:40) 찬 438장**

우리는 주님이 같이 하시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높이는 사람이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같이 하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는 자를 대할 때 그에게도 같이 하시는 주님도 의식하여야 한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함께 하심을 보

시고 우리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님과 같이 사는 훈련을 하여야 하고 주님도 같이 하심을 알고 교우들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서로 사랑의 말로 교제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목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라. (마 11:28-30) 찬 435**

현실의 삶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각들을 마음에 거두어 품으면 무거운 짐이 된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놀림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상의 생각들이 분출이 되어 삶을 불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상의 생각들이 나타나면 거두지 말라. 즉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두어 모을수록 무겁게 되고 가시같이 마음을 찌르고 독이 되어 마음을 죽이고 삶을 죽이는 무서운 것이 된다. 그렇게

하는 습관을 버리라. 그리고 같이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리하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상의 생각들이 모래성 같이 무너지게 된다. 오늘날도 모세의 구리뿔을 바라보는 자가 나옴 받음과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마음에 힘을 얻는다.

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불행한 맹인. (마 12:9-14) 찬 436장**

본문의 내용에서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손이 굳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그 생각에 잡혀 있었다. 성전에 앉아 설교만 듣는 자로 있지 말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님 앞에

있어야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생각에서 자유함을 받는 구원을 오늘도 받는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건물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아닌 곳에 있지 말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상의 생각으로 매여 잡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토 **마음에 쌓은 것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사는 법이다. (마 12:35-36) 찬 325장**

술을 계속 마시면 술에 취한다. 그리하여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하지 못한다. 마음에 죄의 생각으로 채우면 마귀의 인격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마귀는 죄의 생각을 사람이 듣고 보고하는 세상의 것을 통하여 마음에 넘치게 스며든다. 그것을 마시고 즐기고 나누면 마음은 죄의 것을 좋아하게 된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더라도 마음에 세상의 것을 담으면 그렇게 된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에는 죄의 것을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 사람은

마음에 쌓아진 대로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죄의 생각을 멀리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으로 산다. 마음이 비워 있지 않도록 노력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들이도록 노력하여 마음에 쌓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도 만나를 거두어 살아라 하신다.

교회음악 이야기(43)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이 기쁜 소식을 “O Spread the Tidings 'Round”

필자가 중고등학교 시절인 1970-80년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찬송가 중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원문 한 절을 나열합니다.

Oh, spread the tidings round, wherever man is found, 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라.

Wherever human hearts and human woes abound;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아픔이 가득한 곳 어디든

Let every Christian tongue proclaim the joyful sound: 모든 그리스도인의 혀가 즐거운 소리를 선포하게 하라.

The Comforter has come! 위로자(보혜사 성령)가 오셨다!

이 찬송은 프란시스 보토크 (Francis Bottome 1823-1894)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를 가지고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윌리엄 킬크패트릭 (William J. Kirkpatrick 1838-1921)이 곡을 붙여 1890년 찬송가집 "Precious Hymns for Times of Refreshing and Revival"에 이 곡의 가사 첫 부분을 탄 "O Spread the Tidings 'Round" 제목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역 찬송 집에 처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제목은 "The comforter has come"입니다. 프란시스 보토크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1850년 미국의 성공회 감리교(Episcopal Methodist) 목사가 되어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주로 찬송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미국의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의 중간기로 당시에 크고 작은 부흥 집회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일어나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계몽을 펼치며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 그는 찬송 시를 쓰게 되었고, 그는 총 68곡의 찬송 시를 남겼던 위대한 찬송작가였습니다. 보토크 목사의 찬송 시 "이 기쁜 소식을(O Spread The Tidings Round)"은 요한복음 4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소재로 삼아 가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맹인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느냐는 질문(요 4:22)에 주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사건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던 필자의 시간 정점을 다시 1970-80년대로 되돌려 보려 합니다. 당시 부흥회 때 이 찬송을 인도하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님들이 찬양했던 모습들을 주마등처럼 필자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강대상을 마치 큰 북 삼아 손을 힘차게 내리치며 연신 외쳐대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 이에 맞장구를 치며 마치 고성에 가까운 듯 큰 소리로 외쳐대는 "성령이 오셨네 ~~~".

이 뜨거운 열기가 그 때는 왠지 시끄럽게만 느껴졌는데 오늘날은 그 함성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의 순간들이 많이 그리워 집니다. 그것이 고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John Stephen Piper, 1946 -)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께 굶주린 삶 (A Hunger for God)'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 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 두렵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밀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현실과 타협하며 부스러기, 찌꺼기들로 가득 배를 채우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맛을 잃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깊은 돌이킴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Sanctus Franciscus Assisiensi, 1181or1182-1226)는 그의 유서에 "내가 나병환자와 입 맞출 때 전에는 구역질 나던 것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회심"의 순간이었으며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리처드 로어 (Richard Rohr, 1943 -)는 "그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의 모자람을 제대로 맛보고 전과 다른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갖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고전적 그리스도교의 성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가 그의 책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터지는 땅을 파고 수탉은 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 기독교인의 사명과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키며, 바른 예배자로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에서 불리는 찬양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함을 갖고 열심히 찬양하므로 깊은 영성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기독교회 대표)



72. 현대판 아빠의 유형

'아버지' 또는 '아버님'이란 호칭은 권위적이고 거리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어도 '아빠'라고 부를 땐, 다정다감한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빠'란 호칭으로, <현대판 아빠의 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기러기 아빠

기러기는 새 중에서 자기 위치를 가장 잘 압니다. 기러기는 부부간 금실도 지극합니다. 암수놈 중 누가 먼저 죽더라도 재가하지 않고 독신으로 여생을 마칩니다. 기러기의 자식 사랑도 유별납니다. 아산에 불이 나도 품에 품은 새끼와 함께 타 죽을지언정 새끼 홀로 두고 도망갈 줄 모릅니다.

'기러기 아빠'는 조기 유학가는 아이들과 함께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뼈빠지게 일해 학비를 모아 보내는 중년 가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지키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다는 기러기 아빠가 혼자 남은 외로움과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삶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우울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 펭귄 아빠

펭귄 어미는 알을 낳고 먹이를 찾아 달포를 걸친 장정을 떠납니다. 아빠 펭귄은 이 알을 얼지 않게 품고, 잠시도 움직일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해 굶어야 합니다. 어미가 돌아왔을 때는 새끼는 부화되고, 어미는 뱃속에 저장해온 먹이를 반주하여 새끼를 먹입니다. 그러나 눈보라 속에 시달리고 굶주린 펭귄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바다로 가다 쓰러져 죽습니다.

'펭귄 아빠'는 '기러기 아빠'의 파생어로 돈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기 유학을 떠난 아이들과 아내를 보러 해외에 나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국의 젊은 아버지를 빗대는 유행어입니다.

3. 독수리 아빠

'독수리 아빠'는 '기러기 아빠'의 파생어로, "펭귄 아빠"가 돈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기 유학을 떠난 아이들과 아내를 보러 해외에 나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국의 젊은 아버지라면, '독수리 아빠'는 이와 반대로 언제나 가족을 보러 해외로 날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4. 정자(精子) 아빠

전통사회에서 아내의 결함으로 아기를 못 낳을 경우, 씨받이 부인을 들여 아기를 얻는 것이 씨받이요, 남편의 결함으로 아기를 못 낳을 경우, 약탈동침이나 뜨내기동침 등으로 아기를 갖는 것이 씨내리다. 이같은 경우에

내가 생부, 생모임을 밝혀서는 안 되는 금기의 조건부입니다.

현대에도 남편의 결함으로 아기를 못 낳을 경우, 정자 제공자에 의한 정자를 아내의 자궁에 인공 수정하여 아이를 얻으므로, 혈통과 재산을 상속케 하는데, 이 경우에 정자를 제공한 생물학적 아빠를 '정자(精子) 아빠'라고 합니다. 인공수정에서도 정자 제공자(생부)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혈연적, 인륜적, 법률적, 상속적 갈등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5. 헬리콥터 아빠

사고 현장에 갑자기 헬기가 나타나듯 어디선가 나타나 자기 애만 챙기는 아버지, 헬리콥터가 사고 현장을 맴돌듯,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자녀를 '마마 보이'로 만드는 아버지를 빗대어 '헬리콥터 아빠'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너무 어린애같이 대하는 극성스러운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젊은이들이 독립하지 않고 오히려 이유를 '헬리콥터 아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6. 다람쥐 아빠

가난하지만 행복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빠 다람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 과일 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곧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야." 아내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다 사주지만, 남편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다람쥐같은 아빠를 빗대어 말합니다.

7. 트로피 아빠

시대가 급변하여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함께 일하는 아내를 위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아빠, 전업주부(Mr. Mom)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저녁을 차리고 정원을 가꿉니다. 이같이 트로피 받을 만한 아빠란 의미에서 '트로피 아빠' '트로피 남편(Trophy Husband)'이라고 합니다.

8. 꼴찌 아빠

'사람 좋으면 꼴찌'(Nice guys finish last)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미 넘쳐나는 '미스터 나이스' (Mr. Nice), 사람은 좋은데 신랑감(배우자)으로는 꼴찌라니... 데이트 상대로는 '나이스 가이' (Nice Guy)가 1순위, 그러나 평생 반려자로는 '꼴찌'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엔 '나이스 가이' 보단 뭔가 조금은 부족한 남자에 시кет말로 '필'이 뜻하는 모양입니다.

이같이 '사람 좋으면 꼴찌'란 말이 유행어가 되다보니, 요즘은 자녀교육에도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 좋은 아빠는 꼴찌'(Nice dads finish last)라나. 아버지의 과잉보호 때문에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진다는 걸 비아냥댄 말입니다.

9. 반딧불족 아빠

반딧불족 아빠란? 가족들의 눈총을 못 이겨, 한밤중에 아파트 베란다로 나와 우두커니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반짝이는 반딧불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일리가 있어 보이는 유행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하는 한 시대의 풍자요, 해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현 주소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0.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미련없이 떠나버리고 나면, 혼자 남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마침내 알이 부화되면, 사력을 다한 투쟁으로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만신창이가 되어 지친 아빠 가시고기는 돌 틈에 머리를 박고 죽게 됩니다. 아빠 가시고기의 시체는 새끼 가시고기의 먹이가 되고, 양상한 가시만 남긴 아버지의 시체를 남겨둔 채, 새끼 가시고기들은 떠나버립니다.

가시고기 아빠는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독수리 아빠, 다람쥐 아빠를 합한 슬픈 아빠의 형태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 희생하는 지상 최고의 아빠가 가시고기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설탕 아빠(Sugar Daddy)

딸과 같은 젊은 여자(Sugar Baby, 주로 여대생)와의 애정 및 성적관계의 대가로 학비, 렌트비, 용돈, 선물 등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는 아빠벌 되는 부자 남자를 설탕 아빠(Sugar Daddy)라고 말합니다. 일명 '원조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설탕 아빠(Sugar Daddy)는 미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학비가 엄청 비싼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여대생들이 힘들게 알바를 하며, 학비나 방 렌트비를 벌기보다는 수가 대디를 하나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보다 편하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꽤 된다고 하고, 이를 알선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북부투랑베시 종족

▲ 인구 120,000명

▲ 종교 이슬람교 97%, 복음화율 3%

▲ 복음 매체 성경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필 와카토비섬에서 산다. 어업, 배 만들기 등에 종사하며 땅이 비옥하여 농사를 짓는다. 교육을 강조하며 문학이 발달 되었다. 대다수가 무슬림이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며 조상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힌두교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믿는다.

▲ 기도제목

- 1. 하나님의 말씀이 북부 투랑 베시어로 번역되어 성경을 통해 교육과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2.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들로 변화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POSMEGA MALE CHOIR featuring conductor Kang Gyeong-seong and pianist Choi Hee-jin. Includes performance dates and locations: 2023. 10. 1. Sun 10:30 am 퀸즈 장로교회, 2023. 10. 1. Sun 5:00 pm 뉴욕 장로교회, 2023. 10. 4. Wed 7:30 pm 필그림 선교교회, 2023. 9. 29. Fri 7:00 pm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교만의 옷을 벗고

사람은 누구나 얼마간 높이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과 자기가 제일이라는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표현된다면 별로 크게 문제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교양이 있고, 그런 감정이나 욕망을 자기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욕망에 자신이 지배당하거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사로잡혀 이른바 '교만'이라는 자리에 군림하여 앓게 되면 문제가 된다. 구조적 권력형의 교만과 심리적으로 남을 멸시하는 정신적 교만, 그리고 종교적 위선의 교만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결정적인 오만심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

수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이 이러한 교만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센병 환자였다. 당시 세계 최강국의 군대 장관이라는 찬란한 유니폼 뒤에 숨겨진 그의 몸뚱이는 천형의 악질적인 병에 의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화려한 대장군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교만으로 치장된 자신의 권위에 우쭐거리고 다녔으나, 밤에 집에 들어와 유니폼을 벗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었다. 이것이 그를 괴롭혔다. 수많은 낮과 밤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기로 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센병의 치유를 요청했다.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주며 간절히 기도라도 할 줄로 알았는데 이 무슨 푸대접이라는 말인가? 자기의 나라



“ ‘교만’이라는 자리에 군림하여 앓게 되면 문제가 된다. 구조적 권력형의 교만과 심리적으로 남을 멸시하는 정신적 교만, 그리고 종교적 위선의 교만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결정적인 오만심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

시켜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명령했다. 나아만은 몹시도 불쾌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에게 문안하고 자신의 상처를 만져

에 있는 다메섹 강과 바르셀 강은 요단강보다 얼마나 더 깊고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위의 간청과 자기 한

센병의 심각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요단강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요단강은 “내려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강으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에 있는 사해에 이르기까지 약 96km 정도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고 있다. 물이 별로 깊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못한, 강이러기보다는

의 제복을 벗어야 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위업을 자랑하는 장검의 띠를 풀어내려 놓아야 했다. 빛나는 별이 붙어 있는 모자를 벗고, 위풍당당한 군화를 벗어야 했다.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옷을 벗고, 금줄로 수놓은 바지도 벗어야 했다. 그리고 속옷도 모두 벗어야 했다. 드디어 나타난 것은 한센병으로 하얗게

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병든 몸을 가진 한 인간이 요단강 강가에 떨고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다. 아무리 잘 났다고 큰 소리치고 떠들어도, 권력을 휘두르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지배해도, 학력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군림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강가에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면 초라한 모습밖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게 된다. 요단강 강가에 옷이 벗겨져 세워진 나아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나는 심각한 한센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각종 죄악의 더러운 한센병에 걸려 있다면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잠가 목욕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만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떨리는 발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그리고 몸을 물에 잠겼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꾸준히 일곱 번이나 몸을 잠가며 씻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다.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보고 그는 감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왕하 5:14)

시내라 함이 좋을 것 같은 별로 불일 없는 강이다. 나아만은 요단강 강가에 섰다. 나아만은 먼저 타고 온 말 위에서 내려야 했다. 그리고 대장군

씩어 문드러지고 파리하게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대장군의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연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고개 숙인 해바라기

기 시작했습니다. 해바라기들이 처음 피어날 때는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서 있더니 시간이 더해지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인 고개는 날 수가 더해지면서 더욱더 숙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바라기를 보며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해바라기가 처음 필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고개를 점점 숙여가고 있

지?” 순간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꽃이 폼 때는 아직 씨가 영글지 않았을 테니 꽃머리가 텅 비어 있었겠지. 그런데 시간이 더해지며 씨가 영글어감으로 무게가 더해지니 고개를 숙이는 것이겠지. 지금 당신의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 모든 자연의 이치가 해바라기처럼 씨를 맺는 식물들은 영글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

같네. 나도 좀 아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를 숙일 줄 알았으면 참 좋으련만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런 제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6).”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주와 함께 50년
주를 향해 50년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일시 **2023. 9. 24 (주일) 11 AM**

장소 **세계선교교회 본당**
927 South Menlo Ave. LA, CA 90006

INVITATION

세계선교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5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복된 자리에 모두를 초청합니다.

창립 50주년
선교부흥회

하나님의 꿈 Dream

강사 | 원용수 선교사 - 미얀마

2023.9.29(금) ▶ 10.1(주일)

29 (금) 저녁 7시
30 (토) 저녁 7시
01 (주일) 오전 8시, 11시

세계선교교회 본당

라이프 제공, 아이들 케어

29 FRI 저녁예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창12:1-9
30 SAT 저녁예배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꿈 고전 1:18-21
01 SUN 주일예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길 22:30-31